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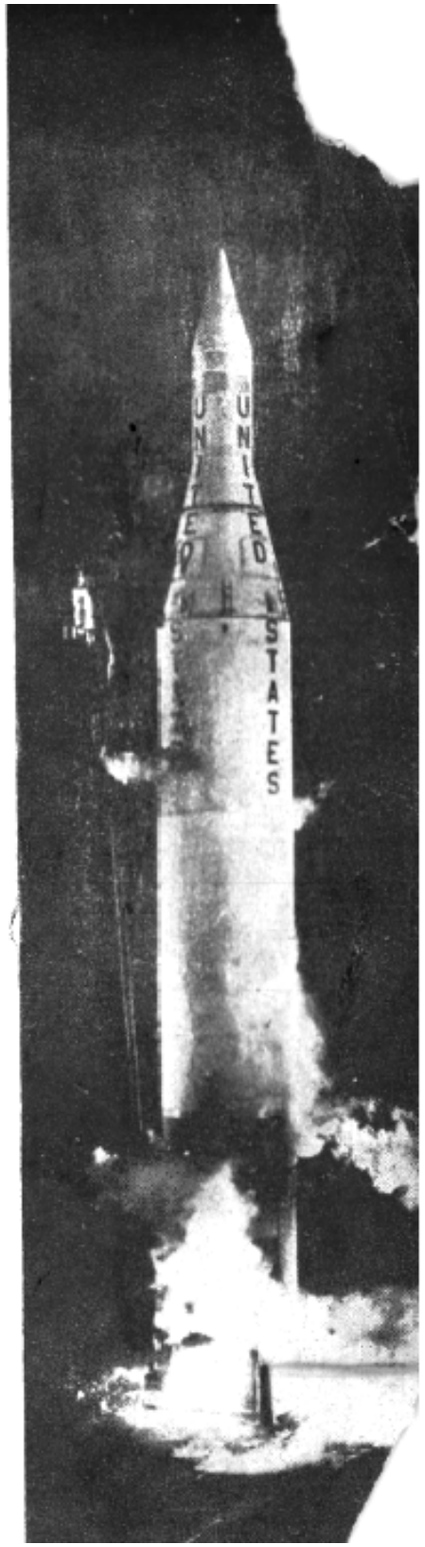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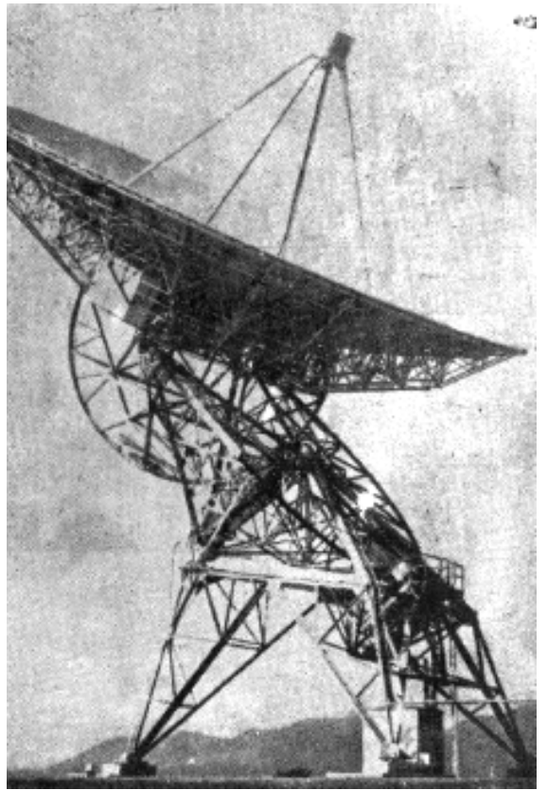
창간호

사진설명

미국이 지구의 전리층을 탐사하기 위하여 29번째의 위성인 익스플로러 3호를 주노 2호 로켓에 싣고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되는 순간 (오른쪽)

금성 표면의 그 첫 모습을 포착하여 지구에 보내온 라디오 텔레스코프(반경 85feet(25.5m))의 모습-
1961년 안에는 반경 140feet(42m)의 더 큰 텔레스코프가 제작될 것이며 이는 과학자들에게 하여금 더 멀리 있는 천체의 현상을 연구케 할 것이다. (왼쪽)





<권두언(卷頭言)>

지행(知行)의 실(實)

-창간(創刊)에 즈음하여-

정훈감(政訓監) 주정호(朱貞鎬)

지금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화폭으로 시각정도의 욕망만을 충족시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개조와 노작이 있어야 할 때요, 모든 의욕과 행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최대한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생을, 하나의 전체를 구출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다. 이것이 사월의 파종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태도가 아닌가 한다.

예방의학이 건전한 신체를 전제로 한다면 국토방위로 건전한 개인생활을 전제로 할 것이니 일선의 허도 있을 수 없고 각자의 허도 있을 수 없다.

전선의 허를 막기 위한 진시황의 만리 축성의 노력도 자신의 허로 말미암아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이러한 자신의 허를 실로써 무장할 때 적은 감히 우리를 엿보지 못할 것이고 한편 우리도 건실한 이 사회의 일환으로서 내외 겸비의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의 무장에 있어서 지행일치는 자고로 군인 기백의 특징이다. 허영의 사회에서 비록 빈축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결코 이 기백을 저버릴 수는 없다. 오늘의 행복보다 내일의 행복을, 개인의 행복보다 자녀의 행복을, 자녀의 행복보다 겨레의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우리에게 오늘의 시련만으로 의구와 주저가 있을 수 없고 다만 꾸준한 인내와 노력만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미사일」로 이러한 지행의 실을 얻고자 하는바 헤아릴 수 없는 건전한 힘이 우리에게 생겨남을 굳게 믿으며 창간 서두에 부친다.

미사일 창간호(創刊號)
목차(目次)

표지(表紙)‥이희세(李喜世)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주정호(朱貞鎬) ····· 1

도덕중정운동(道德重整運動) ····· 김기석(金基錫) 2
내일(來日)을 위(爲)하여 ····· 유봉영(劉鳳榮) 14
무(無)와 유(有)의 교차로(交叉路)에서 ····· 김형석(金亨錫) 24
◇저항(抵抗)의 정신(精神) ····· 5
나를 찾는 길 ····· 임동선(林東善) 34

☆존슨 박사(博士)와 구두 ····· 박근묵(朴根默) 6
☆맹고불(孟古佛)의 청백(淸白) ····· 31
☆고도(孤島)에 뻗친 인간애(人間愛)의 표본(標本) ····· 23
케네디의 평화군단(平和軍團) ····· 진봉천(陳奉天) 28
서구문명(西歐文明)에서 배울 것 ····· 여세기(呂世基) 7

진리의 창
- 성공(成功)의 뜻 ····· 4
- 숨은 연구(硏究) ····· 13
- 한 개의 핀 ····· 25
- 머리를 숙여라 ····· 39

달팽이의 홍소(哄笑) ····· 조풍연(趙豊衍) 20
포성(砲聲)과 포도주(葡萄酒) ····· 김종문(金宗文) 16

광장(廣場)의 사상(思想) ····· 조연현(趙演鉉) 32
[명화감상(名畵鑑賞)] 부인상(婦人像) <안토니오 폴라이우올로 작(作)> ····· 표지(表紙) 3면
나는 뇌우(雷雨)를 탔다 ····· 윌리암 H 랜킨 / 이병인(李秉仁) 역(譯) 37



도덕중정운동(道德重整運動)

-Moral Rearmament-

김기석(金基錫)



1.

현대의 문제는 그릇된 이데올로기와 그릇된 생활 풍조의 문제다. 공산주의와 부패가 문제다. 이 완강한 그리고 썩은 구렁텅이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역사를 바로 향도하는 것이 다름 아닌 현대의 문제다. 이르는 곳마다 거짓과 불의와 분쟁과 불화와 애욕과 질투와 눈물 흘림과 억압과 부패가 편만하다.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산업이 그렇고 교파가 그렇고 정당이 그렇고……아— 이 썩은 물결 냄새나는 물결 허망한 물결을 물리칠 자가 누굴까. 모스크바와 북경(北京)[베이징]은 혁명을 빙자하는 공산 침략의 아성이고 국제도시들은 관능주의 범죄의 소굴인 양 지나가는 사람의 주머니만을 노리는 구경터가 되고 도쿄와 뉴델리는 국제정치의 행상 속에서 한몫 보려는 보따리 흥정하는 골목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 Mackinac와 서서瑞西[스위스] Caux에서 M·R·A 세계대회가 열렸다. Mackinac의 회기는 5월 29일에서 10월 말, Caux의 회기는 7월 1일에서 10월 말까지였다. 모인 나라로서는 약 40여 개국으로, 아프리카 북쪽에서 캐나다에 이르고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세계 전역에서 모인 대회였다. 사람도 정치가, 실업가, 군인, 노동자, 종교인, 회사원, 농장경영자, 교육자, 작가, 음악인, 학생, 청년, 가정부인, 영화배우, 흑인, 백인, 아세아 사람, 아메리칸 인디안, 기독교도, 불교도, 무신론자, 전 공산당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개인을 근심하고 가정을 근심하고, 집단을 근심하고, 산업을 근심하고, 정치를 근심하고, 자기 겨레를 근심하고, 세계의 운명을 근심하고……. 많은 협의와 계획과 보고와 개변(改變)과 결의와 표명과 단결과 상호이해와 우정과 봉사와 심정의 전회와 이렇게하여 새로운 형태의 회의가 새로운 정신 아래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20명이 참가하여 아세아지역에서는 일본팀의 50명에 다음 가는 숫자를 보였다. 이 M·R·A 세계대회는 1946년 이래로 매년 이 운동의 센터인 Mackinac와 Caux에서 열리기로 되었다.

2.

현세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주의운동, 그러면서 세계개변운동인 이 M·R·A 운동은 약 40년의 투쟁경력 그리고 240명에 달하는 World mission을 갖고 있다.

이 운동의 창시자 Frank Buchman은 1878년 6월 4일 미국 Pennsylvania주 Pensbrug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위스계 미국사람으로서 1899년 Muhlenburg 대학을 나와 신학박사와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고 1902년 목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처음에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뒤에 영국에 건너가 Cambridge와 Oxford에서 기독교 정신 아래 학생들을 지도했고 이 훈련된 일단의 학생을 끌고 아프리카에서 곤란한 인종 문제 산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하여 기독교 신앙 아래 스칸디나비아, 캐나다, 아세아 이렇게 하여 세계 전역에 걸치는 세계개변운동에 착수하여 80 평생을 싸워오고 있다. 1921년 8월 Cambridge Trinity Hall에서 이 운동의 첫 번 대회인 전영(全英) 대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아마 이 운동의 공적 진발(進發)의 시초였을 것이다.

1928년 일곱 명이 일단(一團)이 되어 자기들의 새로운 정신과 경험을 펴기 위하여 남아연방에 갔는데 거기 신문이 그들 일단을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이라고 부른 데서부터 이 명칭이 생겨나 그때부터 옥스퍼드 그룹으로 알려졌다. 이 옥스퍼드 그룹은 새로운 사명과 훈련된 단결 아래 이르는 곳마다 수천수만 명을 이 정신에 이끌어 부쳐 많은 빛나는 수확하였는데 그들은 한곳에서 다른 곳에 옮아갈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씩씩한 군대 마냥
신의 교회는 진군한다
형제여, 성자의 예던 길을
지금 우리들이 예고 있도다

1938년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와 파탄을 눈앞에 두고 영국 East Ham Town Hall에서 열린 대회에서 Buchman 박사는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의 투쟁은 이 같은 긴박한 세계정세에 대응하여 여러 나라의 도덕적 정신적인 힘을 집결해야 하는 Moral Re-Artmament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때부터 M·R·A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어 이 운동이 단체 또는 이 정신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그룹의 운동, M·R·A 운동은 순연히 Buchman 박사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내적 경험과 그 강력한 정신력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서 그의 고매한 인격과 불을 뿜는 투쟁이 이 운동을 오늘과 같은 반석 위에 이끌어 놓은 것이다. 이 운동이 아마 현세기의 가장 강력한 정신운동 또 가장 특색 있는 세계정변 운동일 것이다. Buchman 박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닦아졌고 또 그 아래 이 정신 밑에 훈련된 뛰어난 인재들이 삼밭에 삼대 들어서듯 모였다. Buchman 박사 자신이 운동의 정신과 지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옥스퍼드 그룹은 기독교 혁명단체다. 그들의 사명은 생생한 기독교를 회복하는데 있다. 그 목적은 신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수립하고 무사(無私)로운 협동을 성취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산업

성공(成功)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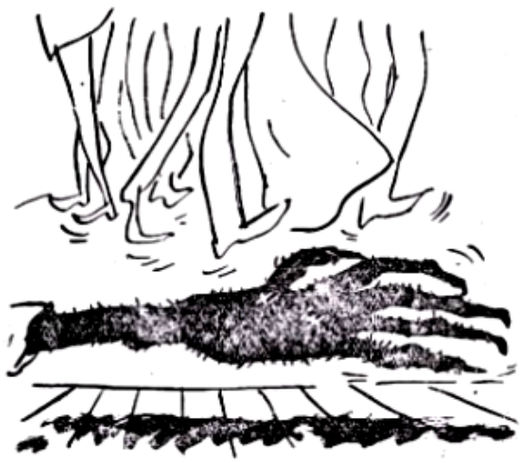
"그 사람 참 성공했어."
"무슨 성공?"
"씻은 듯이 가난하던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말일세"
"허허……그것이 성공인가"
"왜?"
"이 사람아 성공이란 글자를 잘 새겨 보게. 공(功)이란 것은 여러 사람을 위한다거나 나라를 위한다거나 하는 데에만 쓰이는 법인데 어찌 제 자신만을 위하는 부자가 되었다고 성공(成功)이라 하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또는 나라를 위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成)졌을 때 비로소 성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더럽혀지지 않은 정치를 일으키고 정치적 산업적 인종적인 분쟁과 충돌을 근절시키고……옥스퍼드 그룹은 생각하기를 세계 규모의 광범위한 정신적인 각성만이 우리들의 오직 남은 희망인 것이다. 개변된 생활의 기반 위에서만 이 세계의 항구한 재조(再造)가 보장된다. 개변된 생활과 떠나서는 어떤 문명이고 지탱될 수 없다."

3.

Mackinac는 Michigan 호수 속에 있는 조그만 섬이다. 여기에 몇 해 전에 M·R·A 세계센터를 지었다. 천 명 넘어 앉을 강당 천 명 넘어 수용할 숙사 그리고 식당, 사무실, 창고, 부엌, 휴게실, 독서실, 극장…… Newyork에 있는 UN본부 청사를 보았는데 그것은 각국 대표들이 공식으로 둘러앉아서 회의할 장소고 여기 매키노는 세계 전역에서 모여온 같은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한 개 커다란 가정이었다. 저기를 공식 UN이라고 하면, 여기는 민간 U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 시설운영, 분위기, 정신, 생활이 지나치게 가정적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이나 창고에 쇠라고는 채우는 일이 없고 물건을 아무 데나 놓아두고 자기 집 자기 물건으로 알고 물건을 다루고, 누구나 같이 일하고, 서로 돕고, 예절과 친절과 사랑이 흐르고, 고요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맑고, 깨끗하고, 마음이 고결하고, 여자들이 통 화장이라고는 하지 않고, 정답고, 즐겁고, 서로 아끼고, 수고를 먼저하고, 근심을 같이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집회는 하루 세 번 정도로 아침 7시 반, 낮 11시, 저녁 5시,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 극장에 가서 극이나 노래 영화를 보고…… 5·6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Frank를 중심으로 무슨 계획 세우는 것을 보았는데 흡사 집안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방 한 칸에서는 의논 같은 것을 정답게 하고 있는 광경 같은 데, 그 분위기, 그 정신,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튿날 서울에서 온 신문을 보니 예산문제로 국회에서 옥신각신이 있었고……

그런데 이 매키노에 모인 사람들의 이 정답고 밝은 분위기가 어디서 온 것일까. 두터운 신앙에서 그리고 세계를 바로 잡으려는 사명감에서……여기 모인 사람들의 생활의 근본 원천은 아침에 고요한 시간을 갖는 일이다. 고요한 시간, 이것이 절대자로부터 듣고 또 절대자에게 접촉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시간이다. 이 고요한 시간을 갖는 일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놀라운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이 고요한 시간을 갖는데 의하여 그들은 우리가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미덕인 정직과 순결과 무사와 사랑에 돌아간다. 이 같은 고요한 시간을 갖는데 의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허망 속에서 살지 않고 높은 빛과 거룩한 손길에 이끌려 부단히



허영에 뜬 생활에 적수(赤手)는 뻗친다……신동헌(申東憲)

자기를 개변시키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자기 개변 자기의 심정의 개변에 의하여 가정의 개변, 정치의 개변, 국가의 개변, 세계의 개변에 나아가 탐욕과 죄악과 분쟁과 질투에서 벗어나 사랑과 봉사와 평화에 이끌리는 높은 질서를 이 지상에 이룩하려는 것이 이 운동의 원이요 이상이다. 그런데 이 같은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생활 또는 그 투쟁방법이란 지극히 간단하다. 첫째 고요한 시간을 갖고 둘째 그 생각을 기록하고 셋째 분담하고 넷째 실행에 힘쓰고……그들은 이 방법에 의하여 지금 많은 사람을 획득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그 속에서 굳은 단결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4.

나는 지금 미국 Michigan주. Michigan 호수 속에 있는 Mackinac 섬에서 열린 M·R·A 세계대회에 한 달 남아 참석한 거친 인상을 적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대하여 싸웠고 또 싸우고 있는 것은 세계의 자랑이요 또 교훈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끝까지 물리칠 수 있는 정신무장이 필요하고 또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는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부패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오늘의 위기 아래 놓인 세계는 서울과 함께 매키노가 필요하다. 서울 없이 매키노만 있어도 안 되고 매키노 없이 서울만 있어도 안 되고…… 서울과 매키노가 연결되는데 의하여 우리들은 우리를 도적질하려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쳐부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썩히는 환락(歡樂)의 광상(狂想)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지구상의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에는 거짓과 탐욕만이 번창하고 있다.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마을이 그렇고 제자가 그렇고……서로 속이고 서로 훔치고 서로 욕심만 부리니 너도 나도 한가지로 썩고 찢기고 쓸러지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 이 거짓과 탐욕의 물결을 물리치는 일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가 한마음 한 덩어리가 되어 일어설 때가 닥쳐온 것이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성정(性情)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거짓과 탐욕을 베어 버리기 위하여 건강한 윤리전선이 우리들 사이에 민족과 국가 성별과 인종 언어와 신앙의 구별 없이 결성되고 또 전진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서로서로 격정해주고 서로서로 나누어 가진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충분한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에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자는 넉넉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데 넉넉할 정도의 물자는 없는 것이다.

(필자(筆者) 단국대학장(檀國大學長))

항저(抗抵)의 정신(精神)

초만원의 전차나 버스를 탔다고 하자. 이 속에서 밀리고, 눌리고, 부닥치자면 어지간히 힘이 든다. 몸을 쥐어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두 다리를 버티고 힘을 준다. 이것을 저항이라고 한다.

봄철에 낚시질을 갔다고 하자. 내려오는 물결을 헤치고,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걸음 한걸음을 힘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도 약간의 저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흐리터분한 냄새를 맡으면서, 대포잔을 들이키는 주석이라도 좋다. 또는 비스듬히 내리는 형광등의 연보라색 불빛을 받으면서 커피잔을 기울이는 다방 한 구석이라도 좋고, 혹은 테이블 위에는 일거리를 낮잠 재워 놓고, 옆에 있는 친구나 때로는 옆방에까지 원정을 해가면서 잡담의 꽃을 피우는 자리라도 좋다. 요즘 이럴 경우에 몇 사람 모이기만 하면 으레히 나오는 말-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갈 것인지, 물가는 자꾸 올라가기만 하고, 실업자는 늘어 가고, 전등은 바람도 안 부는데 깜빡깜빡하니……"

이쯤 되었을 때

"응, 그러고 보니 이렇게 약주만 사랑하고 있을 수도 없군. 그만 돌아가세."

"아차, 일이 밀렸어, 가봐야겠군

"여보슈 레지 이쪽 전등 하나는 꺼두지. 그거 없어도 밝아."

"정말 이제 커피는 안 마시겠어. 몸에도 별로 이 될 것 없다더라. 숫제 다방엔 안 들리는 게 좋겠어."

이런 대구(對口)를 하자면, 좀 저항심이 필요할 것이다. 대개는 앞서 말한 사람과 맞장구를 치면서,

"누가 아니래. 도대체 다 틀려먹었어! 정치가 제대로 돼야지 정치가"

하기 일쑤다. 그리고는 또 흘러가는 몇 시간- 결국은…….

미국의 독립전쟁, 우리의 3·1투쟁,

4월 혁명, 인도의 독립운동, 헝가리 의거 등등 많은 예, 훌륭한 저항정신의 선례가 있다. 치열하고도 꾸준한 저항의 실천으로써 사지에서 회생을, 절망에서 희망을, 곤궁에서 번영을 찾은 예는 허다하다.

그러나 저항에도 가짜가 있다.

가령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저 데모를 보자, 대개 저항일 경우가 많다. 아니 사실은 저항인 것처럼 보일뿐이다. 위험이 없으니까, 남이 다 하는 것이니까 남의 뒤에 따라서 한번 해보았을 따름이라는 따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은 저항이란 이름을 빌린 비굴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이 사회의 부패를 지탄하면서 비분강개하는 경우도 비슷한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것은 북받쳐 오르는 정의심을 참다못해서 하는 말이오, 주장일 테니까- 말하자면 이 사회의 탁류를 헤치고 나가는 격이라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전연 다르다. 저항은 길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일어나는 법이다.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는 곳에 무슨 저항이 필요하겠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불평불만이라도 거의 제멋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대세요 유행으로 되어 있다. 대세에 따라서, 유행에 맞장구쳐서 지껄여대는 것처럼 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저항의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언제나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녕 훌륭한 일이다.

저항의 정신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가지고 저항을 실천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가령 관급품 한 가지를 급여 받았다고 하자. 자칫하면

"뭐, 내 것이 될 것도 아니고 쓸데로 쓰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렇게나 마구 사용하기 쉽다. 이러한 때

"하지만 아껴 쓰자. 물자가 어디 그리 흔하겠나.

잠시 이처럼 생각을 돌려 보는 데는 적은 일이기는 해도 좀 저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얼마 안 되는 것이겠지만 봉급을 받았다고 하자.

"이걸 가지고 내가 돈 모으겠나. 우선 좀 쓰고 보자"

그래서는 꼭 당장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것에 이럭저럭 써버리고 만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란 말이냐. 차라리 죽으라지……"

그러면서 홧김에 한잔 마시고, 한잔 마신 기분으로 좀 탈선을 하고—이런 때

"아냐, 그럴 순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도 하지 않나, 어떻든 절약해 두고 보자"

여기에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 용기를 내서 이성 있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옳은 것일 때,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저항이 아니겠는가.

거리의 홍성대는 풍경에 마음이 쏠릴 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번연히 알면서도 굳이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나날이 참된 저항정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존슨 박사(博士)와 구두



박근묵(朴根默)

우리는 전후 서독경제의 부흥상을 들어 '라인 강변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서독의 경제부흥이 눈부실 만큼 이룩된 그 밑바탕에는"발을 잘 시중해주는 사람은 밭이 또한 사람을 시중해준다"는 도이취 격언이 스며들어있는 서독인의 근면과 참된 내핍생활이 뒷받침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바라는 한강의 기적도 결코 남이 그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스스로 내핍생활을 함으로써 그 우렁찬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문호 사무엘 존슨 박사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워낙 가난했기에 구두 한 켤레조차 살 돈이 없어 보통 맨발로 다니는 것이 일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학우들이 보다 못해 민망히 여겨 어느 날 새 구두 한 켤레를 사서 존슨 박사의 방에다 넣어두었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존슨은 자기 방에서 뜻밖에도 그 구두를 보자 고맙다는 말은커녕 선뜻 그 구두를 집어 창밖으로 내동댕이치며" 남이 보내주는 신발을 신는 것은 곧 남의 비호를 받는 것이다. 난 굶어 죽어도 남의 힘을 빌고 싶지 않다. 옥스퍼드 거리에 신발 없이는 못 걸어 다닌다더냐!" 이렇게 외치면서 사양함을 잃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핍생활과는 거리가 먼 단지 문호 존슨의 외고집쟁이 성품이라 하여 한바탕 웃고 말 것입니까? 비좁은 우리네 서울거리를 맨발은 그만두고라도 그나마 일제니 미제니 하는 외국산 고급 양화를 신고 의기양양하게 활보하는 양반들을 우리의 가장자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비극의 씨는 그들의 발자국에서부터 뿌려지는 듯합니다. 미국의 대부호 모레의 서재에 학교를 운영하는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모레는 책을 읽다가 서재에 켜둔 두개의 촛불 중 하나를 끄고 손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손님의 소청은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니 기부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모레는 곧 "약소하나마 오십만 달러만 기부를 하리다"고 쾌히 승낙하면서 찾아온 손님과 환담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여담을 즐기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왜 촛불 하나를 끄셨는가?" 물었더니 그는"네. 글을 읽을 때는



서구문명(西歐文明)에서 배울 것

여세기(呂世基)

거칠은 땅, 지루한 날씨, 음침한 숲-
아아 태양이 그리워……(루키티데스)
꽃피는 파리, 안개 낀 런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향토기질의 이모저모.

상식적(常識的)인 것부터 시작하자

우선 독불 두 나라를 대조해보자. 먼 옛날은 제쳐두고라도 불란서(佛蘭西)[프랑스]는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세 번 수도 파리를 독일군에 점령당했다. 보불전쟁(普佛戰爭)[프로이센-프랑스전쟁] 때는 프로이센 왕이 일부러 파리 교외에서 등극식을 거행하기까지 했다.

1차 대전에 결국 졌지만은 독일군대는 프랑스군을 사뭇 압도해왔다. 20년 뒤 1939년 가을 히틀러의 군대가 동부전선을 2주여 만에 해치우고, 이듬해 봄 저 유명한 보리츠 전격전을 서부전선에 전개했을 때 신화 같던 마지노 요새선은 거짓말같이 소거되고 말았다. 그래서 1944년 여름 미 지상군의 대거 상륙으로, 겨우 파리가 해방 될 때까지 그 철제 밑에서 불인은 꼼짝 못했다.

1946년 6월 파리 교외의 콩피에뉴 원에서 성하의 맹약을 맺은 불군은 단독으로는 1945년 5월에 베를린에 입성하지는 못했다. 그 뒤 세계정세의 변동이야 있었지마는 북대서양동맹의 본부가 된 저 콩피에뉴에 불과 10여 년 전에

촛불 두 개가 필요하지만 서로 이야기만 할 때는 촛불 하나로 충분하지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절약이 오늘날 약간이나마 기부를 내게 된 겁니다" 하고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깊은 밤중에 잠자면서도 전등불을 그대로 켜두어 막대한 전력을 송두리째 낭비함이 없는가 두루 한번 다시 살펴봄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한 두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붙일까 합니다.

미국의 너무나 유명한 제 3대 대통령 제퍼슨이 그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의 사랑하는 손자 토마스 제퍼슨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유훈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여! 내가 마지막으로 네가 꼭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노니 아무리 값싼 것일지라도 필요없는 것은 사지 말지어다. 결국 그것은 값비싼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굶주림과 추위를 막기보다도 훨씬 돈이 더 먹는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고……참으로 뼈 저리는 가르침이요 누구나 버릴 수 없는 생활의 지침이 아닐까 합니다.

또 석유왕 록펠러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록펠러는 젊었을 때부터 아름다운 옷으로 사치라고는 처음부터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여전히 헙수룩한 몸차림 그대로 친구의 초대를 받아 파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 사람아 장소도 좀 생각해야 할께 아닌가? 그런 복장으론 초대한 주인에게 실례란 말이야"이렇게 그 옆에 앉았던 성급한 친구가 책하여 말하자 "내 옷 말인가? 그렇게 나쁠거야 없지? 자네들의 옷이 지나치게 고울 뿐이지……적어도 내 친구론 옷차림에 따라 호의의 유무를 말할 사람은 없을 거야. 사치와 우정은 별개문제가 아닌가!"엄숙히 타이르듯 했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고 보니 우리의 내핍생활과는 좀 손발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만 아무튼 부질없는 의뢰심, 그리고 낭비와 허영, 사치 등은 우리의 내핍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독소이며 병균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준 젊은 학생들이 요즘은 신생활계몽 운동 국토 건설사업 등에 또 앞장서서 나가고 있음을 볼 때 기쁩니다만 우리국민생활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애절한 권유를 기다릴 것 없이 커피와 양담배쯤은 삼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활수준이 그토록 높은 영국 사람들도 커피를 극도로 절약하고 있다 하니 하물며 우리네야 두 번 다시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을 지키는 늠름한 우리 공군용사들이 솔선수범하여 더욱 내핍생활의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 ×

항복한 독일군 참모장이 나토 중구지상군사령관으로 다시 군림하고 있다. 역사의 작희치고는 좀 짓궂다고 해둘까.

이런 사실에서도 독일 사람의 무궁한 활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두려울 정도의 「바이탈리티다」. 그뿐 아니라 동서로 두 쪽이 나고도, 소련이 가장 관심 쓰는 것이 서독의 군사력의 부활이오, 동서독의 통일저지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모스크바에서 발행하는 코로크딜 지의 만화는 악몽같이 늘 「프러샤」 군대의 구스 스텝을 풍자하고 있다. 저 독특한 다리의 직선행진조의 분열식에 꿈자리가 어지러워 스럽족의 신경은 날카롭다.

파괴와 절망의 폐허에서 털고 일어나는 불사조같은 게르만 민족의 불요불굴의 활력만이, 오늘 날의 번영의 결정적 요인이다. 미국의 원조는 둘째 셋째 문제다. 저런 거대한 활력을 이룬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부지런한 것을 들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예거하려도 너무나 보편적이니까, 웬만한 것은 미담도 되지 않는다. 일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산 표본이다. 그것도 흔히 보는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이야기지만.

격담으로 이런 말이 있다

"프랑스인은 정년이 되어 인퇴(引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일하며, 독일인은 정년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일한다. 프랑스인의 생활은 정년과 함께 시작되고, 독일인은 정년과 함께 끝난다."고 하는 말은 널리 알려진 말이다.

그들 천성이 놀고먹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노동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천성이 되어 있다. "가정부라면 독일여성이라야"한다는 것은 흔히 듣는 이야기다.

동시에 따라다니는 습성이지만, 절검의 미덕이다. 이것도 사소한 일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며 독일 사람의 유명한 특성의 하나다.

그다음이 질서를 차리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대표적 특성이 될 것 같다. 행동에나 사고에나 정연한 질서를 차리지 않으면, 찝찝해 할만치 마니아 벽이다. 칸트나 헤겔 같은 대철학자가 나고 의학이 세계에 으뜸인 것도, 이로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기에 영국의 평론가 조지 마크스는

"모든 독일인의 혼 가운데는 오르드눙을 구해 마지않는 염원이 있다. 그리고 또 질서란 어느 때고 꼭 질서다운 질서라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는 세계가 정연하게 차려져 있어야 한다."고 평하고 있다.

그들은 둘만 모이면 줄을 짓는다. "독일서는 새까지도 쪽 줄지어서고 지휘자의 새에 맞추어서 소리 지른다."는 말이 있다 한다. 그런 만큼 규칙을 지키는 데는 그만이다. 정부나 법률에 순종하는 것은 프랑스와 아주 대조적이다. 영미(英美)의 학자들의 연구제목으로도 히틀러가 그만큼 성공한 원인도 전혀 그런 특성에 있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견해로 되고 있다.

우스운 예 같지만은 아이들까지 나치 당년에 행진을 구경하다가 부지부식간에 아이들 자신이 발을 맞추고, 열을 지어 행진을 하게 되더라는 것은 일본사람이 자주 지적한 바이다. 다리도 안 굽히고 구스 스텝이지만은 팔까지 쭉 뻗쳐 '하일 히틀러'를 연호하는 저 획일성이 그들 성격에 알맞기 때문이라 한다.

저 획일성이나 오르드눙 아니면 못 배기는 저들이라 제복이란 것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통일하게 된다. 일본의 학생 제복제도도 이 푸러샤 식에서 딴 것으로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에게 적용이 철폐되었다가 다시 일부 부활한 것이다.

이렇듯 몇 가지 특성에서 나올 것이 이론을 좋아하는 현상이다. 획일과 질서를 위주로 하니까 절로 융통성은 매우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소한 일이라도 추상적인 이론에까지 캐들어 가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론이 먼저다. 그리고 백(白) 아니면 적(赤)이다. 중간적인 타협이 없다. 외곬으로 파고드는 것이 특성이다. 그러니까 우직성이 닮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앞서 언급한 여러 성질에서 실질·경허부박(輕虛浮薄)의 배척이 나오게 된다. 엄격하고 딱딱한 것이 또 수반된다. 겉모양은 투박한 것을 꺼리지 않는다. 건축을 보면, 어째 저리 모양을 안볼까 할 정도로 실질적이다. 그리고 독일에는 아직도 전쟁에서 파괴된 공공건물들을 신축 않고 내버려 둔 곳이 많다 한다. 겉치레 보다 알속 경제부흥을 먼저 서두르자는 것이겠다.

이상의 여러 가지에서 완고성이 절로 닮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에고 센트리즘 자기중심주의라 할까, 딱딱하고 거친 점이 나타난다. 풍전세류적(風前細柳的)인 맛은 푸러샤의 광막한 벌판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다. 엄격 완고 질서 등에서 가정에서는 상봉하솔로 부가장적권력이 강대하며, 처자가 절대복종하는 점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로벌·로위가 지적한바다. 사회적으로도 저런 질서는 엄격히



서부 베를린의 부흥상…폐허화(廢虛化)한 윌헤름 황제 교회를 둘러싸고 새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요청되어 공중생활에도 적용된다. 권위라는 것이 통용되고, 권력주의가 씨가 선다. 관료제가 엄격하다.

이런 것이 모두 전기 여러 특질의 상호 연관되어 필연적 현상이 되고 있지마는 나치당이 와이말 말기에서 저렇게 급속히 대두 득세된 이유도 설명이 될 것 같다. 사회학자 E 프롬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주-가 분석한 바를 보면 하층이나 노동자가 퍽 권위 의존적이라는 점이 지적 되어 있다. 어떠한 권력이나 권위에 의지하고 참가하는 것, 즉 자유로운 각자 입장을 버리고 권력자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영국인과 좋은 대조가 되는 것으로 히틀러의 돌격대가 1933년 집권 당시, 놀랄 만 한 숫자로 증가되어 저 만우 깃발 앞에 모여들던 사진이 눈에 선하다. 일찍이 일본학자가 말한바가 생각나는데, 독일 사람이란, 자신 각자가 따로따로 행동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만큼 줄을 지어놓고 호령만 하라, 그러면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좋은 지휘자 명령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의 광신자가 급속히 운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무슨 그룹이든 참가하고 싶어 하는 회라인즈 마이에라이(회가입벽(會加入癖))은 현저한 특성이라고 로위 박사는 지적하고 있다.

이상은 모두가 저들의 획일성, 단체행동성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구주인(歐洲人)[유럽인]이 말하듯, 독인(獨人)은 둘이 모이면 힘이 둘이 되고, 열이 모이면 열이 되는데, 불인은 둘 이 모이면 1/2, 열이 모이면 1/10로, 도리어 힘이 줄어, 단체성이나 단결력이 없음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저런 점으로 융통성이 적으니까 자주 패전을 맛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중국의 철인은 벌써 천 여 년 전에 '너무 강하면 꺾인다.(태강즉절(太剛則折))'이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게르만 민족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 밖에도 지식욕이 왕성하여 하급 노동자일지라도 고상한 교양을 갈구하고 추상적인 토픽을 즐겨 탐구한다는 점이라든가, 상하나 존비의 지위가 뚜렷이 엄격하게 따져지는 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거의 모두가 불이(佛伊) 등 라틴 민족과는 좋은 대조가 될 것이다.

프랑스 인(人)의 십대특성(十大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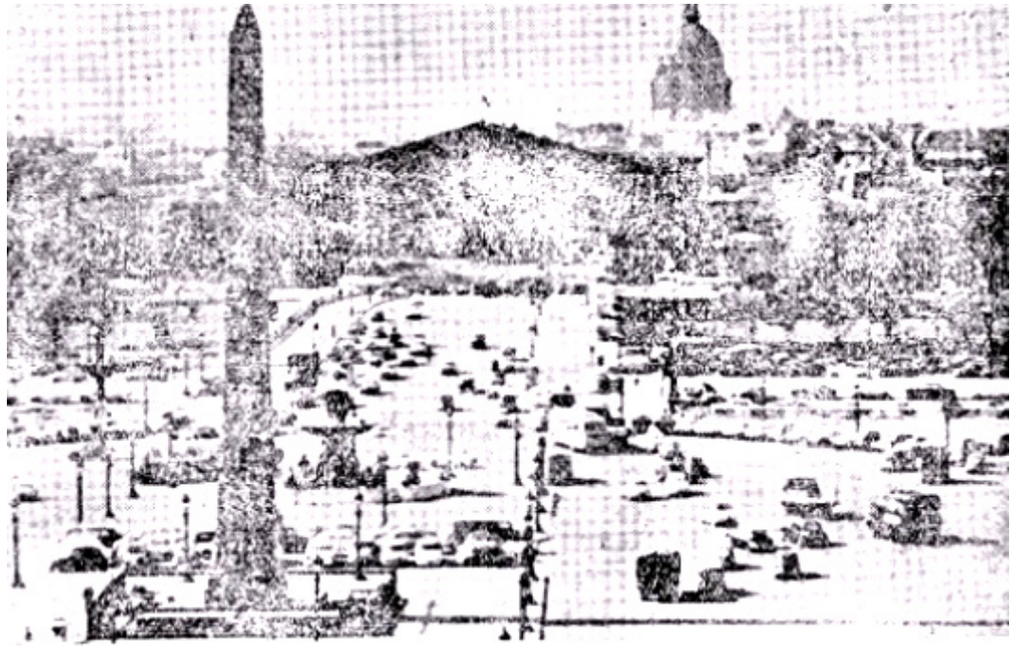
몇 해 전에 파리 최대부수의 프랑스 스와르가 현상금을 걸고, "프랑스의 십대특성"에 대한 독자의 의견을 물은 일이 있었다. 1등에 300백만 프랑의 집을 한 채

탈 수 있어 그랬던지 약 오십 만 명이나 응모자가 있었다.
그 결과 나타난 통계를 보면,
1. débrouillard-이 글자는 영어로는 적당한 말이 없지만은 변통수단이 좋아 능숙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2. 저주를 좋아하고, 불평불만이 많다.
3. 자유를 좋아한다.
4. 총명.
5. 용감.
6. 부지런하다.
7. 음식을 좋아한다.
8. 개인주의.
9. 애국사상이 강하다.
10. 건담(健談), 즉 잠시도 쉬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로 되어있다.
이제 같은 구라파인(歐羅巴人)[유럽인]의 제3자로서 이것을 다시 비평한 것을 보자.
자유애호나 총명, 용감, 부지런함, 개인주의 애국사상 등은 특별히 불인이라고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제대로는 갖고 있는 특성이라 하겠다. 문제될 것은 첫 번째의 변통성 있는 재간이 풍부한 점과 2의 저주를 좋아하는 점, 식도락 그리고 건담, 마지막으로 부지런한 점의 다섯 가지에 관해서 코멘트를 가하고 있다. 즉 프랑스인은 임기응변하는 재주를 자랑삼는 것 같은데, 제3자는 차라리 단점으로 보고 있다. 탈세라든가 가솔린 암시장 빼돌리기 등에 아주 능숙한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점, 우리 한국인 특히 6·25동란 이후 가장 잘 발달된 부면이 연상되어, 우리 국민성의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지적됨직도 하다.
둘째 저주 불평인데, 이것은 만인이 자타 없이 공인하는 바인 것 같다. 프랑스인의 생활수준은 매우 높은 편인데 그래도 불만덩어리다. 월급쟁이가 3주일 동안의 하기휴가가 짧다고 불평이다. 잡화상 점원은 일이 고되다고 불만이다.(독일에 비해서, 2·3시간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도)
이것은 역시 개인주의 사상의 발달로 자기의 생활을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이 제일 목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일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휴식하는데, 프랑스인은 휴식하기 위하여 일한다."는 말도 유럽에서는, 통용되는 말이다. 그런 만큼 그들의 생활의 낙이란 것이 첫째 미의 낙, 즉 식도락에 관해서는 세계 첫째라는 것이 정평이다. 이점 영국 사람들이 영양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점과 좋은 대조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요리와 프랑스 요리가 세계(世界)에 으뜸이란 것도 사실인데 영국인이 샌드위치로 점심을, 이태리인이 마카로니 한 그릇으로 독일인은 더 간단한 흑빵 한 조각 포테이토 한 접시면 역시 점심을 때우는 점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만큼 포도주의 소비량이 엄청나고 중독률이 너무 높아, 연전에 망데스·프랑스 수상이 우유 소비 배증 운동에 솔선수범 나섰던 것이 생각난다.
생활의 엔조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과 식도락이다. 어떤 평자는 보기를 영국인은 연애란 원래가 남녀 간의 우정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미국인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쯤 되는 것인데, 프랑스인에게는 러브란 예술이며 모든 정열을 쏟아서 일체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신사되는 첫 자격이 연애수업을 겪은 자라야 된다. 사랑과 섹스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라틴 민족의 특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그래서
"영국풍 집에 살고, 미국식 가구를 놓고, 중국 요리를 먹고 일본인 마누라를 얻어 프랑스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이상적 생활의 극치"라는 것은 흔히 듣는 말이다.
그러나 한마디 덧붙일 것은 저만치 외도가 예사이면서도 가정의 파괴가 비교적 적은 것은 프랑스 인이 foyer(프와이에)라 하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점이다. 이 말은 프랑스인 독특한 것으로, 어찌 보면 프랑스 문화전통의 가장 좋은 점일는지도 모른다. 마가텔 미드 여사나 월펜쉬타인 여사 같은 미국의 전문적 심리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의 저서는 모두 이 점을 특기하고 있다. "프랑스인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다. 단 상대방이 그들의 가정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 한"이란 말은 그들이 자기가정을 남에게 절대 개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거기에서 개인주의경향이 강해진 것이 아닌가 그 연원을 생각 할 수 있다. 학문에도 일인일당 정치에도 무수한 당파 분열의 현상은 이런데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다음은 건담인데 프랑스인은 어릴 때부터 가정견문이 행동보다 입으로 하는 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면 간단한 인사에도 시간은 걸린다. 별반 중요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껄인다. 백 리 바다 하나 떨어진 영국인과 이점 천양지차다. 손을 댈만한 때에도 말로만 주절댄다. 말이 많으니까 화제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절로 얼굴 표정도 풍부해지고 제스처도 발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계는 저 국민성의 가장 뚜렷한 반영장이 되고 있다. 마치 웅변대회 연습장 같다는 것이다. 공화국이 다섯번 바뀌어도 군소정당

의 수는 20여를 내려가지 않는다.
끝으로 부지런한 점은, 제 3자적 옵저버로 보아 유럽에서 차례로 든다면 첫째 독일인, 스칸디나비아 삼국인, 화란인(和蘭人)[네덜란드], 스위스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프랑스인이 하루 일하는 실제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중목(衆目)이 일치하는 바이다.

영국인(英國人) 기질(氣質)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도 영국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제일 많지 않을까.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2차 대전의 대폭격에도 내부붕괴 않고 배겨낸 저 존불의 끈덕진 감투정신은 인류사의 정화라고까지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 그런 건 고사하고, 전중 전후를 통해 영국사람 같이 물자 결핍 때에 암시장을 모르고 배급 하나만으로 살아난 것은 하나의 경이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무슨 20층 30층 고층건물을 많이 지었다거나 비행기를 몇 만 대 생산했다는 등 유형의 건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페어플레이 정신 불굴·완강의 투지, 좋은 전통에의 집착 등등 어느 것 하나 존불의 장점 아닌 것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흥망성쇠는 외적보다도 내적에 배반당하고 내부 붕괴하는 예가 많은데, 지난 3, 4백년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역사에는 굴욕은 없었다. 떳떳한 정복의 광영 빛나는 기록만이 대영제국민의 역사였다. 저 적은 섬에서 저 빈약한 자원으로서 세계를 지배해 왔다.
노동당이 집권은 하면서 황실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다.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담뿍 지닌 나라가 영국이 아니겠는가. 변절, 배반, 모략, 배신, 악질중상, 갖은 악덕이 멋대로 프리베일 해오고 있는 수백 년의 우리 역사를 회고할 때, 외경의 마음 더욱 간절하다.
페어플레이 정신- 이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심판자의 말은 절대 신성하므로 아무리 불만이라도 복종한다.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 타도 후 워털루 전장에서 개선하여 "승전은 이튼 교의 운동장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술회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마는, 저 정정당당한 교풍과 스포츠맨십이 이튼 중학교(퍼블릭스쿨) 때부터 북돋아진 것을 뽐낸 것이 아닐까. 전후의 사회보장의 복지국가 건설에 한걸음 앞선 것도 결국은 저 신사도정신의 개화결실이라 보아, 잘못일까.
결국 모든 것이 정의와 책임감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라는데 귀착된 것이 아닐까.



보행인이 보이지 않는 파리시가……휴일이 아니면 좀처럼 거리를 나다니지 않는다.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도덕이 가장 순수히 꽃 핀 나라가 영국이라고들 한다.

모반 매국 등 인간으로서 가장 타기할 악덕목들이 만천하를 횡행하던 이조말보다 못지않게 도의가 타지(墮地)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정과 의, 책임감, 예의염치 등 높은 도덕률이 만개한 앵글로 색슨의 저 섬 사회가 무엇보다 도의적으로 비참하게 황폐한 이 땅 재건에 첫째 관심사가 되어야겠다.

자유가 방자 방종으로 대치되고 의무답지 않은 권리만이 고창되고, 법을 다스리는 자가 정과 의의 관념이 희박해지고 정의가 사와 불의에 쫓겨 몰리어 행방불명이 되고 교육한다는 사람이, 육영보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사리에 달리는 사회가 아무리 고층건물을 짓고 길을 닦고, 비행기로 해외관찰을 많이 가도 그건 껍데기 치레에 불과할 것이며 건설과는 딴 결과를 가져올 뿐이 아닐까.

영국 청년들의 크리켓 경기의 철저한 스포츠맨십이란 기반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사회의 정치제도사상 금자탑인 저 영국의 의회 제도를 낳았으리니,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다. 10층 국명의사당을 열개를 지어봤든, 그런 건, 무의미한 허영이나 사회에의 죄악에 불과하지 않을까. 사상누각이란 그런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던가. 예(禮, propriety), 의(義, jutsice), 렴(廉, integrity), 치(恥, conscientiousness) 이런 덕목의 재건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긴급하지 않을까 우리는 일제지배의 굴욕에서 해방된 이 치욕의 역사에다 다시 3, 4천년의 조국사에서 가장 타기할 도덕퇴폐의 페이지를 역사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필자(筆者)는 평론가(評論家))

우주시대(宇宙時代)에서 생존(生存)하려면

명사(名士)들의 경구(警句)

"원자시대에 있어서 낙관론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책임이요, 또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까닭은 낙관이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전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생존할 가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텔러 박사(핵물리학자(核物理學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렌스 방사능실험소소장)

☆ ☆ ☆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우주의 큰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버나드 A 슈라이버 중장

(항공연구발전사령부 사령관)

"그렇지만 세계로 하여금 자유를 믿게 하려면 무기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에 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염분을 없애버린 해수로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세포의 비밀을 알아내어 인간이 보다 오래,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고……마침내는 여러 국민들 간의 보다 깊은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키는 일인 것이다"

제임스 H 두리틀

☆ ☆ ☆

"미전략공군은 기상, 정찰 및 경보용 인공위성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상용 인공위성은 이미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우리의 기상활동의 분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찰용 인공위성의 가치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은 우리의 정보수집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경보용 인공위성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장황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자유세계의 최대의 보복력인 SAC은 반격을 가하는데 필요한 경보의 여유를 단 1초라도 더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무기에서 미사일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조종 항공기도 신축성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무기조직에는 항상 인간의 두뇌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우주에서 작용하는 조직에 인간을 올려놓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간이 조종하는 조직과 인간이 조종하지 않는 조직을 동일하게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목표인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두 계통의 어느 한 쪽의 발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토마스 S 파워 대장(SAC사령관)

☆ ☆ ☆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즉'우리는 인간이 탑승한 운반구를 우주로 얼마나 멀리 보낼 작정이냐'고. 이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즉 '일정한 활동에서 그것이 갈 필요가 있는 데까지……'라고."

토마스 D 화이트 대장

(미공군참모총장)

☆ ☆ ☆

숨은 연구(硏究)



뉴욕의 어느 백화점에서 세 사람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였다.

"자네는 어떤 일을 해보겠는가?"

지배인이 세 사람을 차례로 불러 물어 보았다. 한 청년은 판매계로 또 한 청년은 섭외계로 이렇게 각기 정한 다음 마지막 청년에게 의사를 물었다.

"자네는?"

"네, 저는 승강기를 맡겨 주십시오."

"왜 얼마라도 다른 좋은 일이 있는데 하필 승강기는?"

"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제게는 흥미 있는 일로 생각되어서요."

"안 되네. 자네는 상당한 학식도 있고 몸도 건장한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걸 시켜 주십시오."

"월급도 다른 일보다 적을 것인데."

"좋습니다."

"기어이 그렇다면 자네 소원대로 하게."

그 후 반년이 지났다. 지배인은 이 승강기를 맡아보는 청년을 칭찬하는 소문을 몇 번이나 들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청년을 좋은 자리로 옮겨 주어 격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네 많이 수고했네. 이제 그만 자리를 옮겨서 좀 좋은 자리로 보낼 테니 그리 알게."

지배인은 청년이 으레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아니올시다. 지금의 일이 제게 제일 좋습니다. 그대로 둬 주십시오."

"?……."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지배인은 청년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자네가 3년 동안을 하루같이 결근도 없이 또 열심히 일 해온 것을 치하하네, 그런데 이만하면 승진도 해야겠고 또 자네는 아마 그간 상당히 연구한 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그것을 오늘 내게 말해 보게."

"원 별말씀을 무슨 연구를 제가 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양 말게. 나는 자네를 다른 보통 점원들 같이 생각지 않네."

지배인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자네는 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것이 있을 것 일세.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이 지난 3년 동안 연구한 것을 보여 주게.

"황송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 하신다면."

청년은 말을 마치고 자기 자리에 가서 통계표 한 장을 가져왔다. 그 통계표에는 어떤 부류(部 類)의 손님이 2층에서 내리고 어떤 종류의 손님이 3층에 가고 어떤 차림을 한 손님이 어떤 물건을 많이 사는 등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손님 성질과 식별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기록이었다.

"아아……."

통계표를 들여다보던 지배인은 탄복의 외마디 소리를 쳤다.

"이건 참으로 고마운 사실일세, 지금부터는 승강기 일을 단연 그만 두고 내 방에서 비서직을 맡아주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 의논 상대가 되어 주기 바라네."

이리하여 이 청년은 지배인을 충심으로 도와 미국에서도 굴지의 백화점을 만들어 대성하였음은 물론이다.

거부(巨富)가 될 자격(資格)

어느 날 런던의 어느 기자가 카네기에게 향하여,

"맨주먹으로 거만(巨萬)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하고 묻자 카네기는,

"그 첫째 자격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를 입에 대는 자는 도저히 부호될 자격이 없다. 가난에 몹시 쪼들려 죽느냐 사느냐의 지경에 빠짐으로써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고 식구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의 쓰라림을 속속들이 맛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 비참한 상태에서 원수 같은 이 가난을 쫓아버릴 결심을 단단히 하는 자가 아니면 부호가 될 수 없다. 인간이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함으로써 비로소 그 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어렸을 때의 카네기 역시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하는 양친을 보고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힘껏 일하여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빈곤을 쫓아버리겠다."라고 단단히 결심하여 그는 기어이 거부가 되었던 것이다.

내일(來日)을 위하여



유봉영(劉鳳榮)

19세기(十九世紀) 이전(以前)

동양의 유명한 고전병서 -손자-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라고 한 말이 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용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만사가 다 그러한 것이다. 지금 우리민족은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있다. 정치에서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경제면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이래가지고도 이 국가와 이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다른 것은 잠깐 덮어두기로 하고 우선 경제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하자원이나 수산자원을 개발하는데도 공업과 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공업과 기술은 선진국의 19세기 정도에도 미달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거의 다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재료라도 많이 있으면 그것을 수출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겠지만 원료생산도 보잘것없다. 국민의 7할이 농민이고 보면 농업국이라고 해야 옳을 터인데 2천 2백만이 먹을 만한 농산물도 생산되지 못하여 미국 잉여농산물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형편이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소의 홍수와 가뭄이 있기는 하지만 토질로 보나 기후로 보나 입지조건이 불량하지는 않은데도 농업생산이 이지경임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생산이 부진함을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 현대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이에 준해서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면 국민전체가 보다 많은 물자를 소비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 없는 것이다. 이 중에는 우리의 생활에 그리 중요치 않은 물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실생활에 불가결한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일면에서는 우리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못 된다. 보다 많은 물자를 소비하려고 하면 보다 많은 물자의 생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산 없이 소비만 생각한다면 일시적인 생활향상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빈곤을 초래하여 도리어 지금 이후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비는 국민 또는 개인의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생활은 역전되어 최저의 선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동양사람 특히 우리 조상들은 검소를 하나의 미덕으로 알아왔다.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현대문명에 뒤떨어지게 한 한 원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물자의 부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생활자재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물자 생산이 전세기에 비하여 많이 증대되었고 현대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상당히 생산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선진공업국가에 비하면 문제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민들이 쓰고 있는 물품이면 무엇이나 다 써보려는 의욕이 팽배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 중에는 우리의 현상으로 보아 그리 필요를 느끼지 않는 물품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치품류에 속하는 소비품 중에는 우리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 적지 않게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행위란 것은 마음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남의 십분(十分)의 일(一)

우리의 국민소득은 연 백 불에도 미달되고 있다. 연 천불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에 지나친 일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것은 국민 중의 일부계층이 지나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소비 즉, 낭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익한 일이 될 뿐 아니라

국가 사회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기물품이나 금전을 사용하는데 국가 사회에 무슨 죄가 되겠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국가 한 사회 안에 있는 물자는 어느 의미에서 공동의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2,000만 국민의 식량으로 2,000만석의 미곡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 중 200만석의 식량을 10만 명이 소비하게 된다면 나머지 1,990만 명은 각기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을 줄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10만 명 때문에 1,990만 명이 배를 주려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물자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한이 있는 물자를 일부 국민이 남용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다른 일부 국민은 그 물자의 결핍을 느끼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개인의 사유물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소용물자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물자거나를 막론하고 필요 없이 낭비하는 것은 하나의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개인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물자를 절용해야 할 이유는 이런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절용이란 것이 개인 자신의 경제를 보다 윤택하게 할 것도 분명한 일이다. 이씨왕조실록을 보면 금주와 도우(屠牛) 금지령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잦았다. 이것은 절검을 숭상한 유교의 영향뿐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상태가 남용 남식을 허하기 어렵다는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보아 우리 조상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중에는 이와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수없이 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부득이 외국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산품이 있는데도 꼭 외국산이래야만 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 예하면 국산양복감이 외국산에 비하여 그리 큰 차가 없는데도 영국산이거나 향항제(香港制)[홍콩제]거나 일본제품으로 양복을 지어야 신사의 체면이 깎이지 않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커피를 먹기 시작한지는 불과 반세기라고 하겠고 또 커피가 불가결한 음식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커피는 으레 먹어야 하고 사교상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을 위시하여 전국 주요도시는 물론 심지어 시골에 이르기까지 다방이 수없이 있다. 커피가 국내산이라면 그리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이니 국가 경제에 유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와 같이 국산이 있는데도 외국산을 쓰거나 일상생활에 별 도움이 없는 외국물품을 쓰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형편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예(例)

다른 국민의 예를 잠깐 말해보려고 한다. 중국은 청조말로부터 중화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부패했고 군벌이 발호해서 민생을 조금도 돌보지 않았으나 국민들은 각기 자신의 생활유지와 경제발전에 노력했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빈약했지만 민간자본은 성장하였다. 해외로 나간 화교들로 말해도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근면 노력함으로써 동남아 일대의 상권을 좌우할 만 한 세력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서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국 노동자의 근로상태를 말하고자 한다. 그때 중국인 노동자의 노임은 우리 사람보다 퍽 적었다. 한인들이 일급 25전 내지 30전을 받을 때 그들은 15전 내지 20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절용 절식함으로써 매일 2, 3전의 저축을 하였다. 그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한인들이 저축을 못하되 도리어 차금을 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능히 저축을 한 것이다. 독일과 일본이 제2차 대전 시 패전국으로 전화에서 신속히 부흥하여 지금은 다른 강대국에 못지않은 경제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두 나라가 그렇게 신속히 부흥되었는가를 한 번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나라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원(經援)만으로 부흥이 신속히 된 것은 아니다. 그들 국민성이 근면하고 절검을 숭상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약 40여 년 전의 일인데 일본학생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어떤 집에



포성(砲聲)과 포도주(葡萄酒)

허영(虛榮)은 극복(克服)될 수 있는가?

김종문(金宗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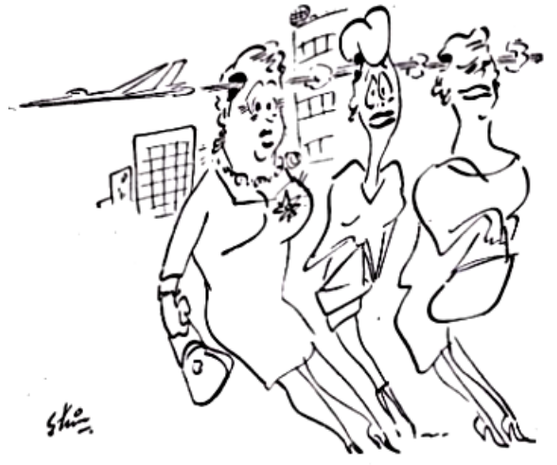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을 가리켜“허영심이 많다”거나“허영에 떠있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의 출처를 대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외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일 것이다. 외국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경우에는 한편으로 수긍되는바 없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발되는바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자의 편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편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정도의 빈곤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의·식·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며 후자에 있어서는 빈곤한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의·식·주의 욕망을 버려야만 하는가? 자기 수입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취미에 알맞은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자신의 입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허영심이 많다” “허영에 떠있다”라는 말이 흘러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선의로 해석해서 우국지정(憂國之情)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우국지정이라면 높이 평가해 마지않지만 가짜가 많은 세상이니 우국지정에 가짜가 없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이른바 신생활운동을 한다는 어떤 지도자 한사람과 만난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옛날에 한동안 유행하던 이른바 국민복 같은 것을 입고 입으로는 신생활운동에 관해서 떠들고는 있지만 그가 포켓 속에 지니고 있는 물건은 모두가 사치품이다. 하나의 예만을 들자면 그는 파카 61이라는 만년필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할 때 파카·61이라는 만년필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사치스러운 물건으로서 미국 대통령이나 록펠러의 후예나 카네기의 손자나 할 것 없이 이 이상 가는 만년필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만년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외국산인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외친다면 이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생산하지 못하는 동시에 만년필을 생산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생활운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동하며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바지만 어떤 운동이든 일종의 행사로서 시종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의 행사가 성공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하며 방식은 원칙적인데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을 가리켜“허영심이 많다”거나 “허영에 떠있다”라는 일종의 테제에 대해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람은“허영심이 없다”또한 “허영에 떠있지 않다”라는 일종의 안티 테제를 내걸어 본다. 이는 엄격한 의미의 가정일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해진 양말을 버렸더니 하숙집 주부가 그 양말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해진 곳을 실로 기워서 갖다 줌으로 그대로 신다가 또 해졌기 때문에 내버렸더니 그 주부가 그 양말을 들고 와서 이 양말은 다시 기우면 또 신을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버리느냐고 하여 일본학생은 독일인의 검소에 놀랐다고 한 말이 있다. 서양 사람들은 양복을 수선해 입는 것을 별 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상태를 보면 선진국가와는 비교할 것이 못되고 후진국가 중에서도 떨어진 편에 있다. 남과 같은 경제수준에 도달하려면 정부와 국민 각자가 누구보다 근면하고 절검을 일삼아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인고 단련에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경제는 부흥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후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겨를에 사치를 일삼고 부허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자본의 결핍은 경제건설의 중대한 애로이다. 자본의 축적은 절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가능한 한도까지 모든 물자를 절용하고 낭비를 삼가야 할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으로 국민 하나하나의 절검이 민간자본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22쪽으로 계속)

들을 볼 때 이들은 허영심에 날뛰고 있다고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을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관찰을 해 본다면 허영보다는 오히려 자연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들이 걸치고 있는 옷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옷이란 것은 대개 한 벌이다. 다시 말하면 단벌치기 신사들이다. 이것은 영국제도 미국제도 아닌 국산품이다. 이들이 이른바 외출복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초를 겪는가는 짐작되지 않는가.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가리켜 허영이란 말로써 표현한다면 허영이란 말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 밖에는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은 네, 다섯 벌의 옷을 옷장에 걸어놓고 있으며 살기에 편한 사람은 열 벌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 내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는 일이 관습화된 것이 예사이다. 옷차림에 있어서 외국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옷의 질과 양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생긴다. 이 차이는 다름 아닌 빈부의 차이다. 여기에 외국 사람은 허영심이 없고 한국 사람에게는 이것이 많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지 않는가. 오히려 문제는 유행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엄격히 따진다면 허영성은 유행성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허영성은 정신적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 유행성은 외형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행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 영화에서 오는 것 같다. 한국 사람은 영화를 유일한 오락으로 삼아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딴 오락이라고는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영화라는 것은 딴 영화가 갖지 않는 테마와 스토리와 아울러서 유행을 의식적으로 노린다. 이 영화를 구경하는 사람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드나 액세서리에 대해서 어떤 매혹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무지각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를 모방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경향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상업적 수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배우를 상품화하고 배우는 연기 다이얼로그 옷차림을 통해서 유행을 뿌리고 유행은 거리에 가득 찬다. 대개 놀고먹는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 나을는지도 모른다. 이 말은“무위도식하는 사람이 보다 더 유행을 즐긴다.”는 일종의 고발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행과 무위도식은 별문제다. 무위도식에 관한 문제는 유행의 분야가 아닌 딴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유행이 무시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자. 이런 나라면 나라일수록 유행의 분야가 아닌 딴 분야에서 무위도식이라든가 실업자라든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모두 그렇지 않은가. 필자는 앞서 허영성은 정신적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 유행성은 외형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세뇌용 뇌기(腦機) 서울 상공을 날다…… 신동헌(申東憲)



유행은 돌고 돌아…… 김경언(金庚彦)

허영과 유행은 완전히 차단된 두개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허영이란 것은 유행에서 시작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행은 허영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공허한 마음이 극단화하게 되면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살이 요청되기 쉽다. 공허한 마음이 극단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자극은 유행이란 데서 택하기 쉽다. 이 정신적 상태는 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람 특히 한국의 젊은이는 허영에 빠지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상 싶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아서 허영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허영할 수 있는 가능이 움틀 수 있다는 말이다.

공허한 마음은 허영지대로 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허한 마음은 왜 생겼을까. 이것은 정신적 전통이 없는 까닭으로 생겨진 정신의 빈곤에서 온 공허감일 것 이다.

우리나라 사람을 가리켜“허영심이 많다”거나“허영에 떠있다”라는 일종의 테제에 대해서“허영심이 없다”또한“허영에 떠있지 않다”라는 일종의 안티·테제가 내걸려 왔지만 우리는 지금 양자를 종합해야 할 진·테제의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한국의 인텔리 시민 학생으로 하여금 공허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첫째로는 한국을 싸고도는 객관적 정세요 둘째로는 휴전선이요 셋째로는 외국의 풍조와 사조의 급작스러운 도입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글에 보다 호응할 수 있는 두 번째의 휴전선에 관한 것과 세 번째의 외국의 풍조와 사조의 급작스러운 도입에 관해서만 취급하고 싶다.

그 영화 이름을 잊었지만 2차 대전 때의 상황을 재현시킨 것이었다. 전쟁터 가까운 이른바 후방도시의 장면이었는데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태가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피난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고 바다 건너 먼 곳으로 피난을 못갈 바에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죽을 곳을 자기 집으로 택하고는 그날그날을 살고 있다. 여인들은 포성이 들려오는 벅찬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장 속에 깊이 간직한 옷을 꺼내 입고 목걸이를 걸고 반지를 낀 숙녀 차림을 갖추고는 포도주를 마시며 회상에 잠긴다. 이야말로 극단과 극단의 대결이다. 어찌 보면 극단과 극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일는지도 모른다.

휴전선이란 전쟁 상태의 상징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했다. 이 불안과 초조는 휴전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허한 마음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공허한 마음은 어떤 자극을 받음으로써 자위 삼으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즉 외국의 풍조와 사조가 우리의 공허한 마음속으로 침투해온다는 문제다. 지금 한국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의 풍조와 사조를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한들 지나친 말은 아닌 상 싶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외국의 풍조와는 확실히 이율배반의 관계인 것 같다.

이런 풍토에서 볼 때 까뮤의 -이방인-에 등장한 뫼르소는 일종의 유행아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며 실존주의란 우리 사회를 문란케 하는 독소로 밖에 지탄받을 길이 없다. 뫼르소는 양로원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 어머니가 죽은 다음날에 희극영화를 보고 여인과 같이 잠을 잔다고 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 풍토적 조건으로써 이 같은 뫼르소의 행위를 볼 때 괘씸하기 한이 없으며 실존주의문학에 대해서 저주의 화살을 쏘게 된다. 그러나 뫼르소의 행위는 우리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대체적으로 뫼르소는 유행아의 이미지로서 거리에 가득 찬다. 뫼르소는 과연 그런 인간상이며 실존주의는 과연 그런 풍조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실존주의문학은 하나의 반항의 문학이라고 할 때 뫼르소는 반항하는 고아이다. 뫼르소는 일체의 관습 도덕 선함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부정해야 한다.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성관념 속에서 언제까지나 안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탈출함으로써 새로운 정신을 설정한다는 새로운 성실성의 지향이다.

이 뫼르소 사건은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채 일종의 유행아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휴전선이 가져오는 공허한 마음을 한층 더 공허하게 만들기 쉽고 동시에 이는 허영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가져올 가능이 없자않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뫼르소의 정신이 아닌 외형만을 받아들이는 자체에서 비극은 잉태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허영은 극복될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에서 가장 허영이 없는 나라로서는 필자가 보기에는 독일·영국·이탈리아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검소하다는 말을 듣지만 그들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면 허영의 가능을 차지한 시기가 있다. 요는 돌아올 것이 드디어 돌아 왔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이런 경우 이를 극복할 힘이 없다면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써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참된 생활을 규모 즉 협잡성이 끼지 않은 순수하고 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를 기저로 삼은 전통이 생기며 동시에 이어지는 동안 유행성은 불필요한 장식물에 지나지 않고 허성은 마음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는 대신 충실한 정신이 외면을 지배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조화의 미를 가져 을 것이다.

(필자(筆者)·전국방부정훈국장(前國防部政訓局長))

백결선생(百結先生)과 거문고

낭산 밑에 사는 백결선생은 거문고를 잘 탔다. 집이 대단히 가난하였으나 그런 것에는 전연 마음을 쓰지 않고 오로지 거문고를 타기에만 전념하였다. 자기의 희노애락을 거문고에 붙여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해 동리에서 모두 떡방아를 찧는데 백결선생 집만이 무소식이었다. 가난하니 무리도 아니었으나 이 소리를 듣고 부인이

“모두 다 떡방아를 찧는데 우리만 그대로 있으니 어찌할 셈이세요.”

그러나 백결선생은 태연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말하였다.

“허허……모르는 소리.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고 부귀도 역시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오, 부귀가 나를 찾아오면 쫓지는 않으려니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또한 따라가지는 않으리라.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시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방아 찧는 소리를 내어서 위로 하리라”

그리고는 거문고로써 방아 찧는 소리를 내어 아내를 위로하였다고 한다.

오봉(吳鳳)의 희생정신(犧牲精神)

옛날 대만의 토민들 사이에는 3년마다 한차례씩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제를 지내는 악습이 있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은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지내야 하겠소? 이 악습을 못 버리겠다면 나는 더 이상 말리지는 않겠소. 꼭 해야겠다면 금년만은 내가 결정해주는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소?”

이렇게 오봉의 말을 듣고 난 토민들은 전연 하지 말라는 것은 모르거니와 사람을 정해주겠다는 데는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가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요 또 그의 덕망도 높은지라 그렇게 하자고 찬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저녁 무렵에 이 마을 앞으로 흰옷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갈 것이니 그 사람의 머리를 베어다가 제사를 지내시오”

과연 이튿날 흰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왈칵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잘랐다.

오봉의 머리였다. 민중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들의 오랜 악습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달팽이의 홍소(哄笑)

조풍연(趙豐衍)



달팽이도 홍소(哄笑)하는가

제목을 받고 나서 여러 날을 묵혔다. 세상에 달팽이도 홍소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소련의 안드레이 뷔신스키는 국제연합총회에서"새우가 휘파람을 분다."는 말을 써서 화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새우의 휘파람은 불가능이란 표현을 약간 문학적으로 해본 야유에 불과하였다.

달팽이의 홍소 이것은 참으로 새로 등장한 야유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나더러 정의 지으라는 것이다.

우선 달팽이란 놈은 어떤 놈인가 이것부터 더듬어야 얘기의 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달팽이의 특징은 그 걸음걸이에 있다. 이놈은 걷지를 못하고 꼭 기어 다닌다. 배를 대고 미는 힘이 있다. 아이들 수수께끼에"달팽이가 아침에 석자를 올라가고 저녁에 한자를 내려오면 닷새에 모두 몇 자나 오르게 되느냐?"하는 것이 있다. 이만큼 달팽이란 놈은 전진도 하거니와 후퇴도 한다.

달팽이의 다음 특징은 그 등의 껍데기일 것이다. 소라만큼도 단단하지 못한 껍데기 속에 몸을 감추고 있다가 다닐 때는 몸이 그 속에서 나와 기며, 그 껍데기는 괴나리보따리처럼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방랑의 고아- 아주 안성맞춤의 표현이다.

달팽이의 눈은 촉각 끝에 달려 있는데, 무척 근시안임이 틀림없다. 높은 나뭇가지도 마다 않고 기어오르기는 하나, 그 나뭇가지의 끝에 다다라 비로소 갈 데가 더 없음을 깨닫는 모양이다. 항시 백척간두에 서서 세상을 굽어보는 풍류객이라면 말이 그럴 듯하나, 참으로 가엾은 근시안이다.

이제 이만큼 짚어 나아가고 보니, 짐작이 되는 것 같다. 달팽이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처럼 느껴진다.

만약에 학자가 달팽이를 실험대에 올려놓고 따질 때엔 결코 이런 과대망상은 떠오르지 않겠지만, 달팽이처럼 폐로 호흡하고 먹을 것을 찾기에 눈이 벌건 우리들 서민은 매사에 제 신세와 대조해보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달팽이를 우리들 자신처럼 느낄 수 도 있는 것이다.

걸음이 굼뜨고, 근시안에다 일진일퇴를 잘하여 백척간두에서도 별로 놀라지 않으며 게다가 판잣집까지 등에 지고 다닌다면 이 어찌 우리를 닮았다 아니할 수 있는가.

여기서 나는 완전히 제목의 '달팽이의 홍소'를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다. 새우는 휘파람을 불 수 없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달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웃을 줄은 안다. 어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잘 웃는 격으로 너무 주책없이 웃어서 탈일 지경이다.

만우절(萬愚節)의 우(遇)

4월 초 1일은 만우절이라고 한다. 어찌 이것이 보급되었는지 그 발상하며, 이용법을 우리보다 선머슴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각이 무디어 그런지, 나는"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말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 오기를"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였다.

그것이 이날 하루(오전(午前))만은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것이다.

내가 맡고 있는 소년한국일보라는 아동신문에서 만우절특집을 계획하는 것을 사전에 내가 알고, 주간의 권한으로 이를 스톱시켰다.

"날마다 새롭게 거짓말이 거듭되고 있는 사회에서 거짓말을 터놓고 해도 좋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냐"

는 것이 내 주장이다. 더군다나 거짓말쟁이 어른들은 몰라도 아직 머리 말랑말랑한 어린이에게까지 만우절을 권장하지는 말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거짓말이 희귀한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임이 드러났을 때 웃음이 터질 만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는 차라리"4월 1일 하루만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운동을 일으키면 어떨까? 거짓말을 안 할 도리가 없다고 앙탈을 할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제발 이날 하루만은 입을 다물고 지내자."하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다.

어떤 점잖은 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모씨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기별하여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는, 그 끝에"오늘은 만우절"이라고 한마디 뚱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농담이다. 오늘날 교통사고사가 우리 귀에 거짓말로 들리는가? 번화한 거리에 나서면 모든 사람이 교통사고사의 직전에 처해 있는 듯이 여겨지는 위태위태한 이 현실에서 교통 사고사를 거짓말처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래도 유식층에 속한다니 달팽이가 홍소를 안 할 수 없다.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남미 어느 방송국에서 우주과학 공상소설을 설명하다가 화성이 지금 지구로 떨어진다."는 대문을 너무 실감을 내어 읽었기 때문에, 수십만 시민이 미친 사람처럼 거리로 뛰어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이 방송국원은 그 뒤 하등의 비난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프로를 방송하기에 앞서 그것이 공상소설의 낭독임을 깨끗이 밝혔기 때문이다. 찌는 듯한 더위에 머리가 돈 것은 청취자 자신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우절'이라는 제멋대로의 악취미를 가지고 남을 놀래게 해주는 지식인은 반성하는 동시에 비난을 당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파벌이 심하다고 한다. 파벌이 없는 곳엔 반드시 파벌이 생겨진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라고 버틸 근거가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열을 좋아 하는가? 그것은 서로 남을 달팽이로만 보았지 자신이 달팽이인 것은 잊기 때문인가 한다. 뭐든지 자기만이 잘났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일지도 모르며, 자유로운 사고요, 무해무덕한 일이다. 그런데 인간 달팽이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남으로 하여금 제 앞에 굴복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파벌이 심하고 해로운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든지 회가 생긴다. 회란 일종의 조직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회는 조직이 아니다. 바로 회장과 임원의 명단을 꾸미기 위한 회이다. 조직이란, 그 문자가 이르듯이 가로 질리는 놈, 세로 질리는 놈, 위아래가 분명한 놈들이 서로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위로만 솟으려드니 조직이 될 수가 없다.

파벌이 없는 곳엔 이기주의가 앞서고 있다.

옛날에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땅을 장만하였다. 토지가 개혁되자 땅은 축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한다. 얼른 듣기에 허울이 좋다.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선각자의 좋은 모범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식 교육열이란 교육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땅 대신 물려주는 교육이다. 갖가지 재주로써 일류교, 또는 유학 등을 지향한다. 어서 자라서 훌륭한 학벌을 얻은 다음 권력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포중의 어느 사람이 출세를 하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

사친회라는 것은 PTA에서 수입해온 말이다. 타국의 PTA는 지역사회교육과 함께 발달되었으므로 PTA의 일꾼들은 그 자제가 현재학교에 다니고 안 다니고는 상관없이 일을 한다. 동장이 동 일을 보듯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학교 일을 본다. 우리나라의 사친회는 학부형회가 이름만 갈았을 따름이다. 제 자제가 다니는 동안에만 열심히 일하는 사친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관절 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느냐 함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엔 학교를 단골 삼아 물품을 거래하는 상인이 졸업식이나 또는 그 밖의 어느 기회에 학교에다 오르간도 기부하고 종도 기부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날에는 학교상대의 상인이 너무 많을 지경이지만 이들은 학교전체가 혜택을 입을 선물은 가져오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기를 잘 봐주는 어느 개인에게 공납을 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학원으로부터 여물어간다.

부패(腐敗)

봄철에는 학동들이 소풍을 많이 가게 된다. 도시락에 맛난 음식을 싸가지고 간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맛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해야지 모처럼 기대했다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쉰내가 나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것이 빨리 쉬는가? 익은 음식이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는 달걀말이든 고기구이든, 일단 식혔다가 싸주시도록 부탁한다.

사회의 부패도 성숙한데서부터 시작된다. 미숙할 적엔 무르익을 것만이 지향하는 외길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관록이 붙고, 권한이 확대되면 부패의 박테리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반드시 사회적 지위거나 연령과 관계가 깊은 것은 아닌 상 싶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부의 학생이 부패의 직전에 있는 것 같다. 학생하면 매우 참신한 인상을 준다. 청춘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청춘이 제대로 발효할 새 없이 비약해 성숙해 지면 화학약품으로 급조한 청주처럼 맛이 덜 하다.

일부 학생이 부패한다는 말은 일부 학생이 다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권력화 되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과 혁명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 4·19혁명은 무궤도한 권력을 때려 부수기에 종국의 목적이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그 대상이었으나 그러나 좀 더 광의의 독재에 대한 항거라는 것이 4월 혁명의 성격을 높게 평가토록 한다. 다시는 그러한 독재 없기를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었다. 어느 정당 어느 개인을 위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는 4월 혁명을 혁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혁명은 반드시 군사력을 동반하고 그것이 정권을 장악한다. 혁명정권은 기존법률을 무시하고 명령을 선포한다. 그리하여 반혁명과의 투쟁이 벌어진다. 이것이 보통 혁명의 전형이다.

그러나 우리의 4월 혁명은 그렇지 않았다. 맨손으로 총검 앞에 항거했다. 군사력이 중립을 지켰다. 드디어 집권자는 사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는 실격하였다. 변칙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무혈혁명이 아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니 유혈혁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뚜렷한 것은"다시는 이 나라에 독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영광과 자랑에 찬 항거인 그 성격이다. 그러므로 4월 혁명은 혁명이요, 새로운 시대적 성격을 띠었다. 드디어 이 성격은 자유를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학생들에게 감명과 영향을 준 것이었다.

학생은 시민과 가장 친근할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구자, 또 대열의 기수가 되었다.

학생에는 임기가 있다. 소정의 과업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면 그는 이미 학생이 아니다. 학생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후배의 학생들과 접촉하게 된다. 학생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무량대수로 불어가지만, 학생에는 임기가 뚜렷하다. 동시에 기성세대에도 학생의 경력은 있다. 학생들이 지금 손을 잡을 사람은 선배인 기성세대일 것이며 앞으로 손을 잡을 사람은 후배인 허다한 학생인 것이다.

학생은 모두 개성을 지닌 개인의 집합명사에 불과하다. 일부 학생이 몰지각하건 또는 탁월하건 학생 개개인에게는 사실상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떼를 지어 이용하려 드는 심보는 너무나 지능적이라 할 수 있고, 여기 끌려 들어가는 자야말로 어리석다할 것이다.

(필자·소년한국일보주간)

(16쪽에서)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사치와 부허한 생각을 버리고 생산 증강에 모든 힘을 경주함과 동시에 공적이고 사적임을 막 론하고 절약과 검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만 알고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의 장래는 담담할 밖에 없다.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금일의 결핍을 참아야 하며 국민 누구나가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끝)

위인(偉人)의 부모(父母)는 괴상한 인물(人物)이 많아

미국의『맥코-로즈 매가진』의 최신호에 약 400명의 유명인의 양친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유명인이라든가 위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개 좀 색다른 양친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은 가츠엘이란 정신의학자인데 그는『챌린』·『헤밍웨이』·『간디』·『히틀러』도 다 이런 예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400명중에는 대통령, 배우 등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양친- 그 중에도 특히 모친이 자식을 가혹할 만큼 엄격하게 다룬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히틀러·간디가 바로 그러했다고 한다.



고도(孤島)에 뻗친 인간애(人間愛)의 표본(標本)

휴전선(休戰線) 지키며「가갸 거겨」

갸륵한 이 상사(李上士)에 화제집중(話題集中)

휴전선을 눈앞에 바라보는 서해고도에서 국방에 여념 없는 한 공군 하사관이 여가를 이용하여 그곳 주민들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며 섬의 치안도 담당하는 등 슬기로운 파수병이 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약 10시간을 서해로 북상하면 바로 연백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방 10리의 조그만 섬이 있으니 그 이름은 굴도 혹은 굴섬이라고 불린다.

휴전선이 산마루를 타고 넘는 이 섬에는 30호에 17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모두가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어업이라야 조개나 캐고 굴이나 따는 정도이고 또 농업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여서 농토란 것도 보잘것없어 주민의 생활은 빈궁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다.

국방상으로 볼 때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지만 경찰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 거의 치외법권으로 납세의 의무니 교육의 의무니 하는 것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늘은 무심치 않아 그들을 아끼고 호흡을 같이 하며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용사들이 나타났으니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 공군 제○○○○부대 굴도 파견대원들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가 있기는 퍽 오래 되었지만 국토방위의 중대임무를 지니고 있는 몸들이기에 주민들과 접촉하기는 그리 잦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자주 접촉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차차 서로 접근하게 되어 현지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낱낱이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파견대장 이두우 상사(23세)는 이 비참한 주민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군인의 몸으로서 물질을 갖고 도울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들 주민을 돕기 시작한 것이 작년 여름이었다. 그때부터 모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을 먹였다. 섬 아이들의 향학열을 참작하여 야간학교를 설립하고 대원들이 밤마다 번갈아 교편을 잡게 하고 학용품 등도 주선해 주었다. 결식으로 영양 실조된 아동들을 돌보아 주었고, 또 그 섬의 치안도 담당하여 왔다. 또 때때로 섬사람들을 위해 영화도 상영하고 국내외의 움직임 같은 것도 알려주는 등 계몽운동도 일으켰다. 그러므로 섬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두우 상사를 그들의 삶의 지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외로운 섬에서 오늘도 북녘을 노리던 눈초리를 잠시 돌려 아쉬운 것 많은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섬사람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피는 우리 전우들에게 우리들은 다 함께 감사와 격려의 꽃다발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들 유명인의 양친에 있어서 공통된 것은

①적어도 부모의 어느 한편이 대단한 야심가였었다.

②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부모들은 매우 완고했다.

③주위 사람들에게 충동을 줄만한 그러한 의견의 소유자였다.

④한번 두 번 쯤은 인생의 희망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에어로카 출현(出現)

최근 링 람크 엘렉트릭 회사에서는 새로운 소형항공기 에어로카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소형자동차로서도 쓸 수 있고 또 경비행기로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사진은 에어로카





무(無)와 유(有)의 교차로(交叉路)에서

김형석(金亨錫)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 하게 왔다가 가는 것 같이 나도 얼마의 시간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 아닌가.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중의 한 마리 새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물웅덩이 속에 작은 벌레 한마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루살이의 짧은 운명을 애석히 여기는 때가 있다. 그러나 무한히 긴 시간 속에서 몇 십 년의 생활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루살이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무의미한 것 중의 무의미한 것이며 우연한 존재의 찌꺼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을 돌이켜 본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 귀하고 절대적인 일은 없기도 하다. 내가 있으니 저 푸른 하늘 넓은 대지가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지 이제 만일 내가 존재에서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나의 소멸과 더불어 모든 존재는 영과 무로 화해버리고 말게 된다. 얼핏 생각해 보면 내가 없어지더라도 푸른 산 아름다운 꽃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며, 조국과 인류는 여전히 머물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없어진다면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동시에 나와 한가지로 이 우주나 세계, 조국과 이웃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만다.

이와 같이 나는 절대적이며 나의 존재는 필연적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가장 우연한 가운데 태어나 가장 절대적인 가치와 의의를 가지려하는 것이 인간이며 인생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인간적 존재의 의의는 어디에나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의 작은 육체는 광대한 우주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속에 지니고 있으며,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정신은 이 세계가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문제를 간직하고 있다. 파스칼이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도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

이제 이러한 인간적 존재의 특수성을 찾아본다면 어떤 점들이 예거되어야 좋을까?

첫째로 인간은 언제나 유한과 무한의 접촉점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인간은 언제나 유한의 울타리 속에 살면서 항상 무한을 기대하는데 그 존재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유한으로 끝난다면 인간은 그 유한 속에서 자족과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또 만일 인간이 무한한 존재라면 그로서 인간의 뜻은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유한에 머물면서 무한을 얻고 소유하려 하는데 모든 고통과 불행 그러면서도 향상과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내 육체는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유한한 것이다. 다섯 자 되는 신체, 몇 관을 헤아릴 수 있는 작은 존재물에 지나지 못한다. 이 육체가 병들고 활동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생명적 존재는 끝나버리고 만다. 어느 흙속에서 생을 얻어 나왔다가 그 대지의 어떤 부분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존재는 끝을 고한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우리는 내 육체가 그로부터 온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이 이 육체가 돌아가는 어떤 영구한 무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주는 영원히 넓고 크게 우리들을 그 품에 안아주고 있으며 푸른 산 넓은 바다는 항상 무한의 존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우리들만이 다섯 자 전후되는 내 작은 육체를 보존해 보려고 갖은 노력과 수고를 다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어디론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유한으로서의 자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에 접하게 되면 스스로를 무와 영으로 돌리고 싶을 정도로 비참과 공허를 느끼게 된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정복하였으나 키로스의 묘비를 보고 울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 펠시아의 건설자 키로스 잠들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그에게 다섯 자 되는 땅 주는 것을 아끼지 말지어다.'라는 글이었다 한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던 알렉산더 자신이 이미 대지의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유한 속에 살면서 무한을 한없이 그리워하다가 그 유한마저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너무나 서글픈 존재가 아닐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을 그리워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것인지 모른다. 지구가 생겨 지금까지 이르는데 몇 억만년이 걸렸을까? 다시 이 지구보다도 몇 백만 배의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되는 태양계는 얼마나 오랜 옛날부터 있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산출되기 이전에도 한없이 길고 먼 시간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시간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지속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긴 시간 속에서 점과 같이 짧은 한 순간에 지나지 못하는 몇 십 년의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고 번민하고 애쓰다가 마침내는 그 어느 것도 소유함이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여 나의 몇 십 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무궁한 시간 속에 살다가 그 어느 한 점도 소유함이 없이 죽어간다는 사실과 저 넓은 태평양 바다위에 작은 물거품 한 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비교하여 볼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기막힌 일이다. 그 속에서 재산을 벌고 출세를 하려 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인생을 논해보기도 한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여기 병들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하자. 그는 때가 오게 되면 단 일분의 시간도 제 마음대로 못하면서 죽어야 하지 않는가? 파스칼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한, 무한에 접하게 되면 깊은 공포에 빠진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저주스러워 지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 짧은 순간 속에 저 광대 무진한 영원을 받아드리려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니 얼마나 모순된 삶이 아닐까? 우리는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옮겨 모래 우물에 넣는 어린애들의 장난을 철없는 짓이라고 비웃어 왔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작은 시간의 그릇 속에 영원을 담으려하니 그 얼마나 쓸쓸하고 속절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마침내는 일분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면서 모든 시간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삶의 숨김없는 모습이다.

마찬가지의 내용은 우리들의 존재성 그 자체 속에도 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따지고 따져보면 인간이 온 곳은 하나밖에 없다. '무'가 그 대답이다. 오늘의 대표적인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은 무에서 와서 유를 잡으려 애쓰다가 무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운명 밑에 놓여 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 우리들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한, 우리들은 확실히 유다. 무시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온 곳이 무인 것 같이 가는 곳도 또

<진리(眞理)의 창(窓)>



한 개의 핀

파리의 조그마한 은행에 어느 날 한 처녀가 찾아 왔다.

"글쎄요, 모처럼 찾아 오셨는데 미안합니다만 마침 자리가 없으니 다음날 한번 다시 찾아주시오."

처녀는 젊은 은행장에게 보기 좋게 취직 거절을 당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다가 마룻바닥에 핀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그 핀을 주어서 그의 옷자락으로 닦아서 탁자위에 얹어놓고 나오려 했다. 그때

"여보! 거기 조금 기다리시오."

은행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불렀다.

"그리로 앉으시오."

"……"

처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걸상에 앉았다.

"방금 당신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한바가 있어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하고 월급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든 기탄없이 말씀하시지요."

젊은 은행장은 조금 전의 냉담했던 표정과는 아주 다르게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삶의 본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無)에서 유(有)에의 처음 과정을 우리는생(生)이라 불렀다. 이 세상에 내가 탄생한다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유는 마침내 무로 끝나게 마련이며, 우리는 생에 대하여 생존에서 무에의 과정을 죽음이라 부른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삶은 무에의 과정인 때문이다.

무에서 유로 와서 다시 유에서 무로 가는 것. 그나마 앞과 뒤의 무는 영원한 것인데 유는 순간적이며 속절없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 이 어찌 모순이 아닐 수 있으며 비참과 환멸이 아닐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삶인 것이다. 유로 있으려 하면서 무로 가는 것. 끝까지 스스로의 유를 보존하려 하다가 속절없이 무로 스며들고 마는 것, 누가 인간의 이러한 현실과 실상을 부정할 수가 있으며 이 엄연한 사실에서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인간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존재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풀릴 바 없는 수수께끼이며 사랑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저주받은 존재이다. 애착과 신뢰를 두어 볼수록 공허와 환멸을 자아내는 존재이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다던 솔로몬이 3천 년 전에 인생을 헛되다고 노래했으며 지식을 더하는 것은 번뇌를 더할 뿐이라고 가르친 뜻은 그대로 인간 지혜의 극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적인 운명과 삶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이 그 해결의 방도일까? 물론 우리는 누구라도 해결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해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태도가 주어져있으며 우리들 자신이 그 어느 하나에 속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첫째는 이 무한에 대한 유한, 영원에 대한 시간, 무로 향하는 유를 끝까지 붙들려 노력하고 애쓰다가 그 어느 것도 소유함이 없이 자멸적인 공허의 결과를 차지해 버리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관의 소유자다.

그 둘째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인정하면서 양적인 자아확대를 일삼아 보는 뜻있는 삶의 소유자들이다. 민족과 조국을 통하여 스스로의 삶의 의의를 발견하는

애국자들 예술과 학문을 통하여 짧은 육체적 생명의 의의를 길이 남기려 하는 또 남길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다.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며 현실은 변천하나 진리는 영원함을 믿고 있는 삶의 지혜롭고도 용기 있는 선각자들이다.

그러나 세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무한에의 용기를 버리지 않으며 영원에의 신념을 가지는가 하면 무마저도 유로 바꾸려 하는 신념과 탐구의 인생관이다.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철학자라 부르나 그 해결은 불가능함을 거의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종교에서 얻고 있다. 가능만 하다면 얼마나 행복과 안식을 가져오는 축복의 인생관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들도 이 셋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결정과 결단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筆者) 연세대교수(延世大敎授))

<해외진문(海外珍聞)>



나라에 따라 '말'이 다른 꿀벌

오스트리아의 꿀벌은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은 이탈리아의 꿀벌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오스트리아의 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꿀벌들은 먹이가 있는 곳을 제 친구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는 먼저 꽁지를 태양 쪽으로 치켜올려서 방향을 가리키고 다음에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꽁지를 좌우로 흔든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꿀벌들은 다 같이 이와 비슷하게 하되 그 동작이 매우 활발한 반면 이탈리아의 꿀벌들은 적이 신중형이다. 또 다른 계통에 속하는 인도의 꿀벌은 말을 하는 방법이 아주 서툴고 유치하다. 그래서 먹이를 발견하기만 하면 연상 까불어대고 동작이 사뭇 요란하다. 다른 꿀벌들은 이 꼴을 보면 비로소 먹이가 있는 곳을 짐작은 하나 별로 정확하지는 못한 듯하다고. 꿀벌의 세계에도 가지각색이 있군…….

전자두뇌(電子頭腦)가 대권(大卷) 저작(著作)

—항공요금속산서(航空料金速算書)—

전자두뇌가 혼자서 지어낸 420쪽의 대저서가 완성되었다. 이 책은 4월 1일부터 세계의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요금의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런던의 국제항공수송협회의 전자 데이터 처리기가 만들어낸 것인데 책 이름은 -항공요금편람- 두 공항을 연결하는 최단항로-따라서 최저요금을 산출하는데 겨우 12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대저의 완성에는 범 아메리카 항공, 영국 해외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세 회사의 각 책임자들의 3년 동안의 준비가 필요했더라고-

◇◇◇



케네디의 평화군단(平和軍團)

인류(人類)의 삼대적(三大敵) 질병(疾病) · 빈곤(貧困) · 문맹(文盲)을
퇴치(退治)하려는 20세기(二十世紀)의 십자군(十字軍)!

진봉천(陳奉天)

뉴 프런티어 정책을 들고 제 35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 존 F 케네디 씨에 의해서 지난 3월 1일 정식으로 발족을 한 평화군단은 미국내외의 커다란 지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평화군단의 근본적인 이념은 인류의 3대 적이라고 지칭되는 질병과 빈곤과 문맹을 이 지구 위에서 소멸시키고 이러한 인류의 공동의 적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후진국민들에게도 현대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입혀 주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본질적으로 세계 각국이 사회의 악폐나 질병 따위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개혁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0세기의 십자군'이라고 별명까지 붙은 미국의 평화군단은 후진국의 그러한 사회개혁운동을 기술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이 평화군단의 대원들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파견되어 사회의 여러 주요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만큼 평화군단의 성격과 조직과 활동범위 등을 개관해보면 크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평화군단 조직안은 엄격히 말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에 발안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의 민주당 대통령후보자 지명전에 출마했던 험프리 상원의원과 루즈 하원의원이 제창한 것을 민주당 대통령후보자로 나섰던 케네디 씨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한 선거 연설 중 이를 자신이 정식으로 제안하였던 것이다.

케네디 씨는 지난 1월 20일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자 우선 각료임명을 마친 후 공약으로 내세웠던 평화군단 조직안을 실현시키는 일에 착수하여 지난3월 1일 평화군단 창설행정명령을 내리고 곧 이어 이에 대해서 의회에 교서를 보냈다.

케네디 대통령은 창설명령을 내린지 3일이 지난 3월 4일에 자기의 매부인 서전트 슈라이버 씨를 평화군단장으로 임명을 하여 정식으로 발족케 하였다.

평화군단은 기구상으로 국무성 관할 하에 두고 그 본부는 백악관(白堊館) 가까이에 있는 국제협조처 건물 안에 설치되었다.

평화군단의 운영자금은 우선 상호안전보장법의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되어있는데 새 회계 연도부터는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화군단의 기본이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류의 삼대의 적인 질병, 빈곤, 문맹을 퇴치하고 후진국의 국민들에게도 현대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입게 해주는 데 있거니와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시키려는 케네디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의 재래식 불화원조정책이 지니는 맹점과 결점을 시정하고 보충해보려는 이른바 원조정책의 방법론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즉 케네디 대통령은 첫째 미국의 재래식 불화원조가 어느 곳에서도 선의를 의심 받고 있다는 사실을 14년간의 의원생활을 통해서 통절히 느껴왔다. 원조를 주면서 환영을 못 받는 데에는 그 원조방식에 필연코 결함이 있으리라고 상도한 케네디 대통령은 돈만 뿌리는 것만으로는 원조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케네디 씨는 1961년대의 도전의 하나를 새로 독립하는 저개발국가라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과 아세아의 1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들은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의료제도가 미비하며 기술자들이 부족하다. 기술자를 양성하려해도 교육이 되어있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저개발국가들은 최근에 이르러 미소양국의 냉전초점이 되고 있으니 아무리 원조경쟁을 하고 호화로운 계획을 실시해도 사회를 좀먹고 있는 질병과

빈곤과 문맹이 없어지고 사회전반의 수준이 향상 되지 않는 한 결국 뿌리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미국은 후진국에 막대한 원조자금을 투입해왔으나 그 나라의 관료 제도를 거치는 동안 부정 횡류(橫流)되고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평화군단은 후진국에게, 위에서 돈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 즉 사회전반이 향상할 수 있도록 밑으로부터 기술상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군단은 후진지역의 교육, 의료, 농업 및 기타 기술 분야 등 사회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평화군단은 그 이념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봉사정신 내지는 개척자정신을 가진 성실한 사람들로써 구성하려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평화군단장 슈라이버 씨가 3월 5일 발표한 대원모집요강을 보면 대원의 연령은 18세로부터 30세까지로 되어있으나 반드시 청년이나 대학졸업생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있는 미국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어있다.

대원은 계급도 없고 원칙상으로는 무보수이지만 여비와 현지인 수준의 수당은 주기로 되어있다. 그들은 6주간 내지 6개월간 파견될 임지의 문화와 국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현지에 파견되고 2년 내지 3년간 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3월 20일 현재 신청자 수는 이미 정원의 10배가 되기 때문에 엄선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선발된 대원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케 하여준다.

평화군단의 금년도계획을 보면 우선 연말까지 500명에서 1,000명의 대원을 파견할 예정이며 처음에는 교사 중심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의료 농업 방면의 기술자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리고 2, 3년 뒤에는 수천 명의 대원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체제를 확립할 작정이다.

평화군단의 예산면을 볼 때에 대원 1인당 훈련, 수송 및 유지비는 연간 최고 12,000불이므로 여기에 수당을 합치면 그 총액은 불화위기에 처해있는 미국으로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새로운 대규모적인 사업계획이 당면하는 공통적인 장애는 역시 돈과 정치이다. 이 민주당 행정부가 그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군단계획도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사업이 그러하듯이 예외일 수는 없다.

평화군단의 요원이 2,000명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2,900백만 불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자금염출 문제 이외에도 미국 국민의 다수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나 국회 내에서 떠도는 공기를 보면 이 새로운 모험적 계획을 반드시 불찬성하지 않는 의원사이에 있어서조차 그 성과에 대해서 적지 않는 회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까닭에 케네디 대통령은 이 계획을 서서히 추진시키고 있으며 최초에는 500명 내지 1,000명을 파견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면의 정치적 분위기를 살피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동 계획을 찬성했고 3명 중 2명의 부모들이 그들의 아들을 이 계획에 참가시키고 싶어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니만큼 의회도 이 계획에 미온적일 수는 없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이 발표되자 미국 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본부에는 이미 8,000명 이상으로부터 응모와 문의편지가 날아 들어왔으며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단독으로만이 평화군단을 파견해서는 근본적 이념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외국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평화군단을 보내도록 호소하였는데 우선 서독의 브렌타노 외상은 서독도 평화군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미 약 1,000명의 기술자, 의사 및 교육자에게 의향을 타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고로 만약 자유진영의 비교적 대국들이 이 운동에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서는 것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한국을 비롯하여 워싱턴 주재 아세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각국 대사관의 반응을 타진한 모양인데 이미 12, 3개국으로부터 관심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국 정부에게는 환영을 받아도 국가에 따라서는 현지 주민에게는 진심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케네디 대통령의 희망대로 평화군단이 미국의 위신을 높여줄 것인지 오히려 해외에서의 반미감정을 자극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원들의 성실한 노력과 수입국 측의 협조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우리정부에 평화군단의 대원 파견을 정식으로 제의해왔고 정부에서도 평화군단대원의 주한 문제를 외무 및 농림 등 5부 관계자들이 실무적 견지에서 협의하였다고 한다.

평화군단이 한국에 파견할 대원수는 평화군단의 금년도 총 파견인원이 500명 내지 1,000명을 헤아리고 있는 만큼 수적으로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 예상되는데 수입국이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의 대원을 파한하도록 요청해야 할 줄로 믿는다. 미국의 대원체한계획서에 의하면 미국 측은 최소한도의 기본경비만을 부담하고 평화군단대원이 사용할 주택과 식사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 계획은 실질상 한 미양국의 공영체적 성질을 띄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평화군단 자체가 창설된 지 1개월밖에 안 되고 따라서 이념과 목적은 뚜렷하지만 적용될 방법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은 역시 미지수인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파견하는 미국보다 받아들이는 우리 정부가 기술부족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실정을 과학적 및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중점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는 체제를 갖추는데 이니시어티브를 장악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 평화군단의 이념과 목적이 수입국의 전반적 사회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니 만큼 종래와 같은 끌려가는 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시사통신 외신부장)

이 평화군단의 명칭에 관해서 최근 미국 국내에서 약간의 이론이 나타났다고 전해진 바 있다. 즉 군단이란 명칭은 얼핏 들으면 무슨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쉬우니 평화봉사단이라든가 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계에서 그러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편집부)

<해외진문(海外珍聞)>

문화인(文化人)도 가지각색

작년에 독립을 얻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는 칫솔과 안경이 문명개화의 상징으로서 대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이 나라의 흑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른 나무토막을 입속에 넣고, 직장에 나가는 버스나 자전거 위에서 그 끝을 씹으면서 칫솔 대용으로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최근 이런 방법은 너무나 원시적일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문명국 나이지리아의 국위를 떨칠 바 못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칫솔로 바꿔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고 문명개화는 칫솔 사용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이 세워졌다고.

카스트로식(式) 야구(野球)

쿠바의 카스트로 수상은 야구를 좋아한다는 소문인데 최근 그는 신 야구규칙을 만들어냈다. 하바나 근교의 설탕공장에서 근로봉사란 것을 마치고 난 어느 날 카스트로는 공장에서 야구시합을 했다. 주자가 1루에서 2루로 도루한 것을 본 그는 발끈 화를 내면서 당장 도로 1루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다.

"혁명을 하려는데 도둑질을 한다는 게 될 말인가! 야구라도 마찬가지야"

야구규칙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의 공산주의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루마저 못하는 야구경기를 무슨 재미로 한담.

맹고불(孟古佛)의 청백(淸白)



☆세종조때 별명 맹고불 대감으로 유명하던 맹사성(孟思誠)의 인물됨을 몇 가지 일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맹희도(孟希道)의 아들로 고려말기(단기 3692년)에 태어나 일찍이 유명한 학자 권근의 문하생으로서 공부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귀문의 자제답게 수신에 힘을 써 특히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는 남달리 효심이 지극하여 애통에 잠긴 채 7일동안을 음식을 전폐하고 슬퍼하였다.

그는 어머니 무덤 곁에 여막을 지었다. 그리고 생존 시와 다름없이 늘 그 무덤 곁에 있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으나 어머니와 같이 지낸다는 흐뭇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는 무덤 앞에 한 그루의 잣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정성껏 그 나무를 가꾸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길이길이 그의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한 마음에서였다.

그의 지극한 정성의 보람으로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다. 이를 보는 맹사성은 무한히 즐거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한 마리의 멧돼지가 나타나 이 참하게 자라는 잣나무에다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듯이 사나운 기세로 뜸베질을 시작했다. 삽시간에 가지는 꺾어지고 도저히 소생할 수 없으리만큼 짓밟아 놓았다.

이 광경을 본 사성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으리만큼 슬픔과 노여움에 쌓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난데없이 한 마리의 범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어느 결에 멧돼지를 죽이고 말았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탓이라고 하였으며 그후 조정에서까지 이 소식을 듣고 정려(旌閭)를 세워 주었다고 한다.

× × ×

이조에 들어와 그가 대사헌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을 때였다. 사헌부의 지평이라는 벼슬자리에 있던 박안신(朴安臣)이라는 사람과 같이 평양군을 봉한 조대림(趙大臨)이라는 사람의 죄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때 그는 이 사실을 당시의 임금인 태종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큰 실수를 저지른바 되었다. 그리하여 태종의 노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모든 범죄를 다스리는 중책을 맡은 그들로서 공정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왕의 재가를 얻어서 처리했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군으로 봉한 사람의 죄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 같은 실수는 당시의 법도로는 극형감이 아닐 수 없었다. 태종은 그들을 시장터에 끌어내다 죽이게 하였던 것이나 다행이 성석린(成石璘) 같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아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 × ×

그러나 그의 성품은 청담하고 간결하며 또한 장중하여 나라의 큰일을 도맡아 하였다. 또한 너무나도 청백하여 집안 살림이 군색하기 짝이 없었다.

하루는 병조판서가 공사로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때마침 소낙비가 쏟아졌다. 조그만 뜰 안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된 듯하더니 급기야는 방안에도 비가 새기 시작하였다. 말이 방이지 구석마다 새는 물방울을 피할 길 없어 그의 옷과 갓이 다 젖고 말았다.

그는 흠뻑 옷을 적신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크게 느낀바 있었다.

"정승 댁이 저러한데 내가 어찌 사랑방을 가지고 지내겠나"

드디어 그는 자기의 사랑채를 헐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밖에도 맹사성의 청백을 전하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거니와 하루는 그가 밥상을 받고서 수저도 들지 않은 채로 그 부인을 불러 묻는 것이었다.

"이게 웬 햅쌀 밥이오?"

하고 언짢은 기색을 하면서 추궁하니

"녹미는 묵고 떠서 먹을 수가 없기에 쌀을 한 되 바꿔서 밥을 지었죠."

하고 부인이 말하니 그는 정색을 하면서

"그럴 법이 어디 있소. 받은 록을 먹어야지 왜 바꾼단 말이요"

하면서 그 부인을 책하였다는 것이다.

맹사성은 선산이 온양에 있어 성묘길로 자주 내려가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는 길에 절대로 관아에 들리지를 않았다. 그의 평민적인 기질이 결코 자기의 본태를 나타내기 싫어했던 것이다. 그저 검소한 옷차림으로 즐겨 소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려간다는 소문이 양성과 진위 두 고을 군수의 귀에 들어갔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중을 나와 하인들을 시켜 길을 치우는 등 야단을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 마침 협수룩한 옷차림의 늙은이가 소를 타고 그들의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흥! 대감 행차 하신다고 길 닦아 두니 곱사등이 먼저 지나가더라고 참! 재수 없게 어떤 늙은이냐?"

하면서 나졸들이 살기등등 해가지고 그의 앞으로 몰려왔다. 그러나 소를 타고 있던 사성은 태연스럽게

"온양 땅 맹고불이 제 소 제가 타고 간다고 일러라"

라고 말하였다. 이 말에 나졸들은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저들 원님 앞에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다. 이 말을 듣고 그들 또한 대경실색하여 영접은 고사하고 황급히 일어나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만 지니고 있던 인통(印筒)을 옆에 있던 깊은 연못에 빠트렸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 연못을 인침연이라 부르고 있다.

광장(廣場)의 사상(思想)

조연현(趙演鉉)



나체화(裸體畵)와 산수화(山水畵)

서양화에서는 나체화가 많고 동양화에는 산수화가 많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은 나체에서 미를 더 많이 느끼고 동양 사람들은 산수에서 미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인간의 미를 더 많이 추구하는데 비해서 동양 사람들은 자연의 미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그것은 나체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산수는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의 미의식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은 물론 동서의 생활감정 또는 그 역사적 전통의 차이에 원인된 것이니만치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인간의 미를 추구하고 동양 사람들이 더 많이 자연의 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인간을 좀 더 사랑하는데 비하여 동양 사람은 좀 더 자연을 존경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인간을 위해서이고 동양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관심은 자연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양 사람들에게는 자연은 인간에 부수된 것이고 동양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자연에 부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인간에게 있어 인간만이 항상 큰 관심이요 문제이어야 한다면 자연을 인간보다 우위로 해석하는 동양 사람들의 태도는 그릇된 것일까.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면치 못한다면 동양 사람들의 자연우위의 사상은 결국은 좀 더 높은 견지에서 또는 좀 더 근원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동양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자가도취의 함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일까.

대개의 경우 젊었을 때에는 나체화에 매력을 느끼고 나이가 들어가면 산수화에 친근해진다. 이것은 서양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의 그림에 있어서 이든지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인 서양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까. 이것은 젊었을 때에는 좀 더 관능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나이와 함께 정관적인 안정을 찾게 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로요 방향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인간을 추구하는 서양의 미학과 그 생활태도는 청년의 그것이요, 자연을 추구해 온 동양의 미학과 생활태도는 노년의 그것일까.

대체로 서양이라고 하면 젊음이 연상되고 동양이라고 하면 늙음이 연상된다. 이것은 역사적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의 미학적 성격의 문제인 것 같다. 서양의 현대와 세계를 대표하는 오늘과 같은 시대적 성격이 좀 더 늙으면 동양이 세계를 대표할 수도 있을 것일까.

꽃과 음악(音樂)

"꽃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와 유사한 격언이 많고 이러한 격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꽃은 그만큼 순수한 미학적 대상임이 분명하다.

꽃과 마찬가지의 미학적 대상으로서 취급 되는 것 중에 음악이 있다. "음악이란 본질적으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한 산티아나와 같은 미국의 철학가도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꽃과 마찬가지로"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마음속에 어떠한 음악도 가지지 않고 감미한 음의 조화에 조금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모반과 모략과 약탈에 적합한 인간"이라 했고 존슨이라는 사람은"음악은 악덕을 겸하지 않은 유일한 감각적 쾌락"이라고 말하고 카라일은"음악은 천사의 언어"라고 까지 했다.

꽃과 음악이 인간의 사랑을 받게 된 까닭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간단한 것 같다. 그것은 꽃과 음악만큼 인간의 순수한 미감을 자극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꽃과 음악을 즐기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순수한 미감 상태에 놓이는 것이 되므로"꽃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격언이 나올 만도 하다.

인간에게 있어 꽃과 음악이 가장 순수한 미학적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다 같이 감각적인 쾌락적 대상인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즉 존슨의 말과 같이 감각적 쾌락을 주는데 꽃과 음악만큼 우세한 자연물이나 예술품이 드물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가장 감각적인 쾌락이 가장 순수한 미감을 준다는 뜻이 되며 가장 순수한 미감은 최상의 선을 의미하는 것도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감각적인 쾌락이 최상의 선(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상의 감각적 쾌락은 정말 최상의 선을 의미하는 것일까? 쾌락이 미학적 가치라면 선은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양자는 그 개념적 성질이나 가치의 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양자는 서로 일치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반발하고 서로 상반될 수도 있다. 그것은 미학과 윤리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분야인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꽃과 음악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윤리적인 것보다는 미학적인 것이 더 근원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도(祈禱)와 구걸(求乞)

'기도'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물론 종교적 용어로서 인간이 신불에 대하여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불에 대한 인간의 소망과 청원을 표현하는 행동의 한 형식이다. 이와 같은 기도는 그 소망이나 청원의 내용이 무엇이든 신성하고 감동적인 것이다. 그것은 청원하는 사람의 전심전력이 그 기도 속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청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않는 일종의 무상의 열중과 염원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정신과 행동은 이미 종교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결국은 기도의 형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레리가 "시는 기도"라고 말한 것도 그와 같은 일례는 아닐까. 시가 정신의 절정이라면 소망의 절정인 기도와 구별될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신성한 교회당에서 기도에 열중해 있는 사람을 보면 눈물겨운 감동이 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에 열중해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머리가 수그려진다. 기도의 정신이란 다름 아닌 자기의 전부를 바친 행동인 것일까. 이와 같은 행동은 신이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기도의 효과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도와 가장 혼동되기 쉬운 것에 '구걸'이란 말이 있다. 무엇인가를 청원하고 있는 점에 있어 이 양자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 대한 구걸이 기도라면 인간에 대한 청원이 구걸은 아니었든가. 기도가 아무리 무상의 신앙적 자세라 할지라도 신불에 대한 인간의 청원인 이상 구걸의 요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며 구걸이 아무리 유상의 실리적 자세라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청원인 이상 기도의 요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 양자는 다만 신과 인간이라는 그 청원의 대상이 다를 뿐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비해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은 추하고 불쾌하다는데 있다. 같은 청원의 자세인 이 두 가지 형식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정반대의 인상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 일까.

기도의 아름다운 감동은 그 열망에 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아니하고를 불구하고 그 열망에 변함이 없는데 있다. 그러나 구걸의 추한 불쾌감은 그 애걸에 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애걸이 증오나 반발로 변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양자의 차이는 신과 인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청원의 절정과 청원의 시험과의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은 교회당이나 법당 속에서 신에게 구걸하는 추한 인간이 있는 것과 함께 교회당이나 불당 밖에서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문명(文明)과 행복(幸福)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으나 행복의 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이 그대로 행복의 증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역마가 비행기로 전환되고 만리의 이역이라도 통화가 된다. 거리는 놀랄 만큼 단축되고 노력과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되었다. 이와 같은 문명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인류의 행복도 증진된 것일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현대 사람은 역마로 야행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행복해진 것일까. 만리의 이역과도 앉아서 통화를 하는 현대인에게 불행은 이미 없어진 것일까.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는 현대인은 역마로 여행했던 사람들과 꼭 같이 불행하다면 불행하고,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이 아닐까. 문명의 발전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행복과 불행의 성질은 한결같이 같은 것은 아닐까.

현대의학의 발전은 분명히 놀랄 만하다. 난치의 많은 병들이 퇴치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병명과 병균은 거의 매일같이 새로이 발견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병명의 환자는 현대의학의 놀랄만한 발전으로 인하여 퇴치되는 환자의 수만큼은 증대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병균을 퇴치하는 새로운 의학적 방법이 생겨나는 것과 비례해서 병균도 새로이 발전하는 것은 아닐까. 문명의 경이적인 발전과 비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복의 문제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닐까.

흔히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이 그대로 행복의 증대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진보의 개념은 결코 행복의 개념은 아닌 것이다. 현대인은 진보의 형식에 사로잡혀 행복의 정신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행복의 문제보다 진보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현대인은 확실히 그만큼 더 불행한 것은 아닐까.

나를 찾는 길

임동선(林東善)



건망증(健忘症)의 사람들

청년시기를 자아발견시기라고 한다. 자아의식의 확대로 인하여 개성적 존재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시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평생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모르면 무엇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도 알지 못한다.

생활의 정견이 없고 목표가 없으므로 무엇을 위하여 활동할 의도도 세우지 못한다. 언제나 수동적이요, 능동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방적이요, 창조적이 아니다. 바람에 불리는 갈대다.

「생활의 모방」이라는 유명한 미국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얼른 보기에 백인인 듯한 흑인 여자다. 그의 어머니는 색깔뿐만이 아니라 용모 전체가 흑인의 대표적이다. 그 여자는 자기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 어머니를 보기 싫어하였고, 어머니의 사랑을 오히려 원수의 칼날처럼 여겼다.

그 까닭은 백인인 체하고 살아가려는 자기의 정체를 그 어머니가 드러내주는 것과 백인이 흑인을 멸시하는 것을 모방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다. 사랑하는 외딸의 찬 얼음 같은 태도에 상심한 그 어머니는 마침내 죽어 상여에 올라 누어 뉴욕 시가를 통하여 공동묘지로 향하게 되었다. 그때야 그 여자는 아무래도 자기는 감출 수 없는 흑인인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어머니께 대한 불효를 후회하고 상여에 매달려 통곡하였다.

자기가 어머니를 죽인 흑인임을 발견 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남의 바람에 사는 사람을 경계하는 좋은 교훈적 영화이다.

공자가 어떤 제후와 만났을 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이 났다. 그 제후가 자기네 백성 가운데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사해 가면서 자기 아내를 잊어 버렸다고, 실례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공자는,

"그보다도 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걸이나 주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잊어버렸다오."라고 말하였다.

즉 옛 하조의 마지막 임금인 걸이나 상조의 마지막 임금인 주와 같은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하므로 그 부하가 모반을 일으켜 나라가 망하고 자기까지 죽고 말았으니 이것이 필경 자기를 잊어버린 것이라는 말이다.

맹자는

"사람들은 개나 닭을 잃으면 온 동네를 찾으러 다니며 야단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놓치고서도 찾는 이가 적다"고 탄식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객관사물을 알아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관적 자아를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너는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하였다.

인도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에 '아아트만'이라는 것도 인도철학의 자아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가?

자아의식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생각이라고도 일컫는다. 동물에는 웬만큼 의식작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식물에서는 의식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아주 없다. 동물 중에도 하등동물은 정신적면이 매우 희미하지마는 개나 말이나 원숭이와 같은 고등동물은 무엇을 의식하는 정신작용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 오늘의 경찰견과 곡예사의 말과 우주시험용의 원숭이 등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재주가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술은 사람의 훈련을 받았을 뿐, 제 새끼에게 그 기술을 전수할 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아무리 영리하고 기술이 묘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일신에 한하고 생리적 유전으로 그 새끼에게 계승은 되지마는 의식적으로 전수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은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문화를 건설하거나 축적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도 옛날 미개한 시대에는 자아의식이 부족하므로 자기에게 의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의무를 감당할 줄도 알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권리를 찾을 줄도 몰랐고, 자기 발전도 도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고 자아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로 사회의식이니, 도덕의식이니, 민족의식이니 인류 의식이니 하는 것이 나타났다. 개인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때에는 자아의식이 부족하므로 객관적 구체적 물건을 가리키는 명사보다 자아 곧 '나'라고 하는 주관적 추상적인 대명사 같은 것은 빨리 깨닫지 못한다. 아이들은 자기의 배라도 밥을 잔뜩 먹어서 뚱뚱하게 되어 두드릴 때 북소리와 비슷하게 소리가 나기만 하면 장난감과 같이 둥둥 두드리며 노는 것이다. 자기의 손가락이라도 엿과 같이 빨아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관적 정신적 존재를 내성할 줄을 모르고 객관적 물질적 존재와 같이 관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자기의 의복이나 자기의 얼굴은 남에게 자랑할 줄 알아도 겸손하게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반성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훈육할 줄을 알지 못하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그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페스탈로치는

"인간은 처음에는 무율적이다가 다음에는 타율적으로 자라고,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시가 100만원 가는 금강석 반지를 사서, 우단으로 만든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보냈다고 하자. 얼마 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여자가 반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당신이 보내준 상자는 참 곱게 만든 우단상자였어요. 잘 보관하겠습니다. 상하지 않게 잘 싸서 두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아마 이상히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리석고도 우스운 일이라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겨우 한 개의 그릇에 지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는 일생의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보배 '자아'에 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남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말쉬레부는

"인간학은 모든 학문 중에 가장 크고 또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가장 발전되지 못했고 등한시 되어왔다. 인간학을 연구한 사람도 적고 또 큰 발전도 못 보았다."

고 했다.

페스탈로치는"인간은 누구나 위대하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인간을 발견한 사람은 극히 적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이 병든 문명 속에서, 퇴폐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인 향락 속에서 본래적인 자아를 잊어버리고 비본래적인 자아로 전락한 자리에서 다시 자아를 찾아 이 자아를 잘 보관하고 완전히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아교육

옛 성현들은"하루의 일은 이른 아침에 계획하고 일년의 일은 이른 봄에 계획하고 백년의 대계는 교육에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교육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자공이 공자님께 묻기를 "나라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공자는 대답하기를 "교육과 경제와 국방이라"고 말했다. 자공이 다시 묻기를 "그 셋 중에 한 가지만 뺄 수 있다면 무엇을 빼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국방이 필요 없다"

또 묻기를"그 둘 중에 한 가지를 또 빼어버리자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가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즉 국가 민족의 기본요소는 참된 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은"사람이 만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아무 교육이 없으면 새나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칸트는"교육이라는 나무 그늘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비밀의 열쇠가 감추어 있다."고 했다. 러일전쟁 항복조인 석상에서 러시아 수석대표 장군이 말하기를"우리가 이번 싸움에 진 원인은 교육에 졌다"고 말했다. 우리가 의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이나 각종 군사교육을 힘써야 하겠지마는 그보다도 먼저 자아 교육을 힘써야 하겠다. 왕양명(王陽明)은"산 중의 도적보다 내 마음 속의 도적이 더 무섭다"고 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달세계는 머지않아 점령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점령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고 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학교 교육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잘못이다. 물론 사람은 학교에 가서 학문을 배우지마는 학교만이 교육하는 장소는 아니다. 진정한 이상적 교육은 모태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종교교육 등을 종합한 교육이라야 정당한 교육이라고 보겠다.

사람은 세상에 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배운다. 독일 속담에"백년을 살 거든 백년을 배워라. 백년을 배워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죽느니라"라는 말이 있다. 어릴 때에는 가정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학교교육을 받고 장성한 후에는 사회교육을 받는다. 이런 교육은 타율적 교육이다. 타율적 교육보다 자율적 교육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타율적 교육도 필경 자기가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고 작심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영국 속담에"한 아이라도 말을 끌고 강에까지 갈 수는 있지마는 열 사람이라도 그 말에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말 같은 동물도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해야 마시거든 하물며 의지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어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보다 더 자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다.

입지전중(立志傳中)의 성공한 선현(先賢)의 인물들은 흔히 독학을 했느니, 고학을 했느니 하지마는 이것이 다 자아교육을 하였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모두 때가 있다. 농부도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있고 어부도 그물을 던질 때와 그물을 당길 때가 있고 군인도 나갈 때와 물러설 때가 있듯이 사람은 배울 때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학적으로나 생리학상으로 볼 때에 5~7세에서 30 혹은 40세까지가 수학기간으로 보겠다. 물론 역사상 60세부터 시작하여 성공한 사람도 없지 않으나, 보편적인 것은 못된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릴 때에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노년기는 기억력이 없어진다. 격언에"늙어서 배우는 것은 모래 위에 쓰는 것이고, 젊어서 배우는 것은 반석 위에 새기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청년시기에 모든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학문이든 기술이든지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공헌(自我貢獻)

생활의 가치문제는 그 생활이 사회에 끼치는 공헌 유무와 대소로써 측정된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자아교육에 힘써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활이 사회의 향상과 진보를 위하여 공헌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 머리 없는 사람과 같다. 병신이기보다 괴물이다. 위대한 옛 성현들이나 현대 위인들은 치국평천하의 도를 개인의 수양에 구한다. 다시 말하면 원만한 수양을 쌓은 개인을 요구하는 목적은 개인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국평천하를 최종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요구한다, 그러므로 치국평천하의 최종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쌓은 개인수양은 마치 방치장거리로써 좁은 방 안에 들여 놓은 화분이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의 책상에 허영심으로 쌓아둔 평서와 다를 것 없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빛 좋은 개살구를 잘못 먹으면 광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 공헌의 정신없이 수양 받은 개인을 둔 사회에는 그로 인하여 유익은 고사하고 큰 해를 당하여 비운에 빠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로 보면 사회의 향상과 진보를 목적하고 받은 수양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쌓인 수양이라도 값있는 것이 못 되고 따라서 그렇게 수양을 받아 사는 사람의 가치는 보잘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생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공헌이다. 각자의 기능을 조국의 번영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며 새 역사 창조에 참여하겠다는 정신이 강한 청년의 생활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정신만으로는 바른 공헌을 못하는 것이다. 현실사회의 정세를 명확히 관찰하는 혜안의 소유자가 되는 동시에 시대적 요구를 그대로 파악하여 자기로써 그 요구에 응할 분야를 정한 후에 만난(萬難)을 물리치고 용감히 전진해야 한다. 사회의 정세는 정적이나 고정적이 아니다. 항상 변천한다. 그러므로 작년에 가졌던 사회에 대한 지식은 금년에 와서 낡은 것이 된다. 큰 상점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잔품 정리를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창고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사회에 대한 지식도 낡은 것은 한편에 쌓아두고, 새 것을 도입하여 오늘의 새 것을 가져야 한다. 지식은 호수보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 과학보다 더 사회과학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 자기가 사는 사회에 익숙하고 자기로써 사회의 요구에 응할 것이 무엇이고, 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서 전적으로 자기 공헌하는 청년을 새나라 새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청년은 그 시대에 있어서의 현실을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명을 담당하여 선봉이 되어야 한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올바른 역사의 건설을 자각하여 올바른 사상적인 확신에서 창조적 행위가 결단되는 청년들의 힘에 의하여야 이루어진다. 위대한 청년을 갖지 못한 그 시대의 역사가 파탄에 빠지게 됨은 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순수하고 현실에 호흡하여 냉철하며 강직하고 옳고 그릇된 것을 가리는 판단력이 강한 청년의 힘과 피의 공헌을 요구한다.

(필자 공본 군목실장)

태양을 등진 세 손가락……
김경언(金庚彦)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